朝鮮日報
夕刊
二十九日(金)
本紙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炯元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聯盟理事會압두고 獨伊兩國間에默契說

伊는獨逸植民地要求를支持 獨逸은墺國獨立保障

【羅馬二十八日發同盟】羅馬駐箚獨逸大使핫셀氏는 最近 伊太利政府當局과 數次에 亘하야 會見하고 자조協議를 遂하고잇는 中이다 右折衝의 結果 伊獨兩間에는 墺太利의 獨立保障과 獨逸의 植民地要求에 關하야 某種의 默契가 成立되엇다고 傳한다 伊太利政府當局은 右報道를 一笑에 附하고잇스나 뭇솔리니首相이 聯盟理事會에 對한 牽制策으로 獨逸政府와의 接近을 企圖하고잇는 것은 掩蔽키 難하다 默契內容이라고 羅馬外交界에 傳하는바는 如左하다

一、獨逸政府는 墺太利의 現狀을 變更할 것과 如한 行動은 一切避할것

一、伊太利政府는 獨逸政府의 植民地要求를 支持할것

(寫眞은 구두握手를交換하는 獨總統과 伊首相)

制裁案强化는 聯盟規定上當然

駐英伊太利大使의妥協工作에 英外相一切言明回避

【倫敦二十八日發同盟】倫敦駐箚伊太利大使 그란디氏는 二十八日午前英外務省에 이든外相을訪問하고 重要會談을遂하엿다 同府上에서 그란디大使는 制裁에 關한 自國의立場을 闡明하야 如左히 言明하엿다고 傳한다

一、伊太利政府는 이미 에디오피아帝國을 占據하얏스니 새로 植民地要求치안코 또 에디오피아植民地에서는 各國政府의 旣得權益을 尊重할터이다 뭇솔리니首相은 最近右方針을 闡明하엿는데 伊太利政府로서는 다시 新保障을提議할수는업다

一、但聯盟理事會가 六月十五日의 特別會議에서 制裁案强化를決定치안코 單히 現行制裁案을 維持하는데끄친다면 伊太利政府는 卽時 聯盟을 脫退하지안코 暫時 情勢의 推移를 傍觀할것이다

以上의 提案에 對하야 이든外相은 英政府의 方針을 說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制裁案은 聯盟規約에 基한當然한 處置이다 따라서 伊太利政府가 에디오피아의 旣得權을 保障하고 또는 暫時聯盟을 脫退치아케다는 旨를 公約하는 代償으로 制裁案撤廢를 約하는 和約과 相互取引에는 英政府는 到底히 應할수는업다 또 現下의 情勢에잇서서 局面打開의 具體案을 提示하는것도 不可能한것을 遺憾으로여긴다 英伊兩國代表의 見解는 마츰내 一致되지안코 決裂되엇다고 (寫眞은 이든英外相과 그란디駐英伊大使)

現狀維持目標로 聯盟理事會進行

英佛兩政府意見一致

【倫敦二十九日發同盟】聯盟理事會를 目睫에두고 英佛兩國政府는 外交折衝을 進하야 자조 折衝을 進行하고 制裁案善後策에 關하야 協議하고잇는中인데 右會議의 結果 來九月의 聯盟總會까지는 現狀을 維持할 名目下에 事實上「延期」로 態度를 打開하기로 大體 意見이 一致되엇다고 報道된다 聯盟理事會에서 에디오피아 制裁案의 討議는 現下情勢로 英佛兩國政府의 主張을 極力 主張할것으로 觀測된다 如左한 見解로서

一、制裁案을 强化하면 伊太利政府는 聯盟을 脫退할 危險性이 가잇다 그러나 制裁案을 撤廢한다는것은 聯盟의 原則을 放棄하는데 不外하므로 聯盟理事會에서도 아모런 決定을지우지안코 情勢의 好轉을기다릴것

一、伊太利政府에 對한 態度의 決定은 聯盟理事會가아니라 總會의決議에 基한것이다

에國皇帝 지브랄타르到着

【지브랄타르二十八日發同盟】에디오피아皇帝 하일레·셀라시에一世는 英國巡洋艦에 乘하사 二十八日 지브랄타르港에 到着하야 同港에서 二日間 滯在後 英本國으로 向할豫定이다

制裁案强化하면 斷然聯盟을脫退

에國代表出席하면前回同樣으로不出席 伊太利의聯盟對策

【羅馬二十八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주네브代表部를 撤去한以來 情勢推移를 靜觀하고 特別理事會에 對한 秘策을 練하고잇는中인데 英佛兩國政府間의 關係는 漸次 緊密을 加하고잇는 現狀에 鑑하야 可及的 聯盟脫退의 强硬策을 回避할 方針이라고 傳한다 伊太利政府의 方針에 關하야 羅馬外交界의 觀測을 綜合하면 如左하다

一、伊太利政府는 特別理事會에 代表를 派遣할는지 그與否는 아직 決定치안헛는데 萬若 에디오피아代表가 出席할 境遇에는 前回同樣으로 代表를 派遣치안을것은 大略 確實하다

一、理事會가 制裁案을 撤回하고또 規約第十六條의 修正其他聯盟機構의 改組에 邁進할 決意를 示하면 伊太利政府는 欣然 이와協力을 辭하지안을것이며 脫退問題는 自然 解消될것이다 但 理事會가 制裁案을 强化할境遇에는 聯盟을 脫退할밖에 업다

一、伊太利政府가 脫退하면 聯盟은 崩壞하게될것이나 伊太利政府로서는 聯盟의 存續을 希望하지안는바 아니다 또 英佛兩國政府는 急激히 接近하고잇는 關係上 伊太利政府로서는 國際的孤立에 陷하지안토록 愼重을 期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英의具體案要求와 日本海軍當局見解

【東京電話電通】藤井駐英代理大使는 本國政府의 訓令에 基하야 二十六日 英國外務省에 크레기次官補를 訪問하고 海軍條約에 關한 日本政府의 回答을 傳達하엿다는 旨를 二十八日 同大使로부터 外務省에公電이 잇섯다 即 藤井代理大使는 日本側의 回答으로

一、巡洋艦及 驅逐艦의 條約所定保有量 에스카레이터條項의 運用에 依하지안코 關係國의 友好的商議에 依하야 解決하려는 英國政府의 提案에는 異議는업다

一、그러나 이는勿論 條約規定

議會後對策協議

內務省首腦會議

【東京電話同盟】內務省에서는 二十八日午後四時 內相官邸에 首腦部會議를 開하고 潮內相, 湯澤次官以下 各局長이 出席하야 特別議會後에 處할 內務當局의 方針에 關하야 重要協議를 行하고 潮內相이 特別議會에서 言明한 國民生活의 安定, 治安警察의 確立, 地方財政의 調整等의 具體化에 關한 根本方針과 六月中旬에 召集할 地方長官會議에서할 訓示, 指示等에 關해서도 協議하고 同五時 散會하엿다

新役員選定後 政友紛亂本格化?

鳩山一派專橫排擊

【東京電話電通】政友會는 二十八日의 議員總會에서 幹部를改選하고 黨의陣容을 一新하야 人材實力本位로 進하야 名實共히 總務中心主義로 黨務를 執行하고 따라서 幹事長의 權限은 自然 縮少하기로되엇다 이제 新幹部의 面貌를보건대 鳩山一郎氏를 筆頭總務로 그直系인 安藤正純氏를 幹事長에 또兩翼에同系統인 松野鶴平 若宮貞夫의兩氏를안치고 幹事는 土倉 瀨川兩氏를除한外는 全部鳩山系에 屬하야 全혀鳩山內閣의 觀을 呈하야 鳩山一派의陣容이 非常히强化된것은 注目할만하다 이點은 一般이 意外로 여기는바로 鈴木總裁의 排擊과 鳩山系首腦幹部의專擅에 對한 牽制를目的으로 奮鬪한 有志代議士의 期待는 全然 어그러지게되엇다 右有志代議士 中에는 여러分子가 混入하야 中島知久平氏를 黨의 中心勢力에 안치려는者 前田米藏氏를 推戴하려는者 昭和會系의 復黨을 使嗾하려는者 三土忠造氏의 復活을 圖하려는者 鳩山一派와 感情的으로 反感을 抱하는者 等等으로 意中을 갈라보면 모다 딱 同一目標라고 할수업스나 現鈴木總裁의 引退와 鳩山一派의 專橫을 牽制하자는데는 모다 一致되어 相當히 侮蔑키難한 勢力을 가지고잇다 이情勢를 看取한 總裁系와 鳩山一派는 背水의陣을치고 黨內에 隱然한 實勢力을가진 中島知久平氏와 純理派의 堀切善兵衛 濱田國松兩氏를 加하야 如上한 鳩山陣容을 强化하게되엇다고 보이는데 이에 政友會今後의 危機가 包藏되어 將來 總裁의 健康問題其他 어떠한 機會에 當面하야 再次黨內의 抗爭이 表面化하게될것이아닌가고 憂慮되고잇다(寫眞은 鳩山氏)

政府當局 庶政一新實施着手

【東京電話同盟】政府는 特別議會의 公約에 基하야 드듸어 庶政一新에 邁進하기로 되어 爲先二十八日正午부터 首相官邸에서 開會된 定例事務次官會議席上에서 藤沼書記官長으로부터 議會中의 各省大臣及 次官等의 革新策에 關한 言明內容을 各省마다 統括하야 提出하기를 要請하야 늦어도 來週中에는 이를 整理하야 今後 革新政策의 具體化의 基本이 되게되엇다 一方衆議院의 決議案及 이에 對하야 政府가 實現을 公約한 議會制度改革 貴族院改革及 選擧法改正問題에 關해서는 政府는 各其 別個의 調査會를 設立하야 具體案을 樹立하기로 되엇다

英植民相更迭

【倫敦二十八日發電通】豫算案漏洩의 責을 負하고 辭職한 植民相 토마스氏의 後任으로 윌리암 오스비ー고어氏가 二十八日植民相에 任命되엇다

北中密輸問題로 英大使抗議提出

堀內外務次官一蹴

【東京電話同盟】英國大使클라이브氏는 二十八日午後 外務省에 堀內次官을 訪問하고 에드와ー드八世陛下의 信任狀이 到着하얏다는 旨를告하고 宮中에 對한 手續其他에 關하야 協議한 後 北中密輸問題에 關聯하야 거듭 日本政府의 當局을 打診하고 이取締에 對한 努力을 要望한데 對하야 堀內次官은 前回同樣으로 北中에는 密輸가 存在치안는다는 事情을 說明하야 英米諸國이 特히 中國側의 運動에 좃추어 北中密輸問題에 關聯하야 日本政府에 抗議하는 것은 그것은 東亞事情의 實相을 알지못하는 旨를 告하야 英國大使의 抗議를 一蹴하엿다

濠洲羊毛小麥에 輸入許可制實施

牛脂、皮革、牛肉等엔輸入禁止的高率關稅 關稅調查會方針決定

【東京電話同盟】濠洲에 對한 通商擁護法發動에 關한 關稅調查會幹事會는 二十八日午後三時大藏省中央會議室에서 開催하고 大藏、外務、商工、農林、拓務、對滿事務局의 各關係官이 出席하야 政府의 旣定方針인 通商擁護法發動에 關한具體案에 關하야 審議한結果

一、濠洲羊毛及小麥에 關해서는 輸入制限을 目的으로한 輸入許可制를 實施할것

二、濠洲로부터 輸入되는 牛脂、皮革、牛肉等 他市場으로부터 代用品을 充分輸入할수잇는商品에 關해서는 全然 輸入을 禁止할 程度의 高率關稅를 課하기로 決定하고 이實施運用에 關하야 참으로 效果잇게 하기爲하야 다시 詳細한 討議를 行하얏는데 羊毛에 對해서는 輸入組合의 結成으로 濠洲羊毛의 五割까지는 他市場으로 擁護은 스미롤피이바와 如한 纖維의 代用品을 쓰도록 今後는 商工省에서 適當한 處置를 行할터이오 또 小麥에 關해서는 關東州及 滿洲에서도 日本內地와 同一步調로서 이對策에 萬全을 期하기로되엇다

平井局長黑田所長 昨夜刑務所에收容

【東京電話電通】二十八日 午前 自宅으로부터 東京檢事局에 召喚되어 檢事의 取調를받든 鐵道省工務局長 平井喜久松及 東京鐵道事務所長 黑田武定兩氏는 收賄의 嫌疑가 濃厚하게 되엇슴으로 同日午後十時十五分 起訴前의 强制處分으로 市谷刑務所에 收容되엇다

英官憲一名 아라비아人에게射殺

【예루살렘二十八日發同盟】二十八日午前 예루살렘에서 英國官憲一名은 아라비아人에게 射殺되엇다 그러나 依然 英國官憲은 아라비아人의 行動을 嚴重 警戒中이다 四月十九日以來의 暴動에 依한 死傷者는 如左하다

死者 四十八名

그中白人 一名

負傷者 三百三十一名

그中白人 十七名

檢束者 千二百四十四名

그中英國人 九百六十九名

猶太人 二百七十五名

니카라과國軍 急進分子叛亂

各都市政廳을占領

【마나과二十八日發同盟】니카라과國軍의 急進分子는 現大統領 사카사博士를 追出하고 國防軍司令소모사將軍을 首班으로한 新政權을 樹立할 意圖下에 二十八日未明 카라비아海岸一帶地方에 反亂을 起하야 브루ー피일드港其他의 各都市의 政廳을 占領하엿다

西南派 中央武力에對抗準備

【廣東二十九日發同盟】陳濟棠, 李宗仁, 白崇禧의 三巨頭는 軍事會議를 開催하야 協議한結果 廣州를 中心으로、兩廣東北部에剿匪兵團을 設置하기로 決定하고 二十六日 惠州와 韶州에 駐屯軍兵站本部의 開設을 發令하얏고 東部及北部에의 軍의異動이 活潑하야 會議를 終한 各軍師長은 一齊히 原駐地에 歸任하고 各前線部隊의 家族은 續續廣州에 撤歸를 開始하엿다 右는 蔣介石氏가 福建、江西、湖南、貴州、雲南에 四十萬의 中央軍을 配置하고 武力으로 壓迫하려는데 對抗하야 이에 備한것이다

天津工人學生團 增兵反對示威運動

【天津二十八日發同盟】天津工人學生團은 二十八日午前十時半 天津市政府에 殺到하야 中國駐屯軍增派反對決議를 手交하고 繼續하야「打倒帝國主義」「徹底的抗日」을 絶叫하면서 盛히 氣勢를 올렷는데 午後二時에 至하야 겨우 終熄하얏다 右에 關하야 中國駐屯軍及 天津總領事館當局은 重視하고 日滿兩國과의 排日示威運動을 策動하는 共產黨指導下에 如斯한 恩賞的 排日運動이 橫行하는것을 遺憾이라고 天津市政府에 對하야 嚴重抗議를 喚起하기로 決定하엿다

八面鋒

◇朝鮮總督府 今後의 人事行政은 人物本位로 할方針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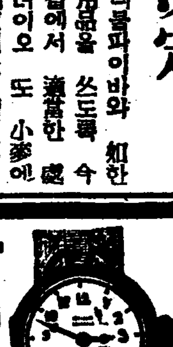
◇只今까지는 人物本位가 아니엇든模樣인가?

◇서가신 法을 작구만드는대신에 以德治人할 무슨方法이 업슬가。

◇自動車協會總會에서 개솔린價올니는것도 反對하고 運轉手待遇改善은 一言半句도 업섯다고。

◇그것은 運轉手協會에서다 다음問題。

特別景品附 住所氏名入・葉書封筒用 ゴム印進呈 (但五圓以上ノ品ニ限ル)



瑞西製懷中側16型クロム		
イ7石入	市價7圓ノ品特價	2.50
ロ7石入	9圓ノ品	3.75
ハ7石入	15圓ノ品	5.50
ニ7石入	18圓ノ品	7.90
ホ10石	9圓ノ品	5.00
ヘ10石	13圓ノ品	6.05
ト15石	17圓ノ品	7.95
チ10石	20圓ノ品	9.50
リ15石	19圓ノ品	7.80
ヌ15石	23圓ノ品	8.90
ル15石	27圓ノ品	9.55
ヲ15石	30圓ノ品	13.50
クロム側16型懷中ウォルサム		
ワ7石入	市價25圓ノ品特價	7.55
カ7石入	29圓ノ品	9.00
ヨ7石入	33圓ノ品	11.50
タ7石入	38圓ノ品	17.95
レ15石	40圓ノ品	15.90
ソ15石	45圓ノ品	20.80
ツ15石	55圓ノ品	23.50
ネ15石	79圓ノ品	32.75
ナ17石	90圓ノ品	33.00

瑞西製 卷腕側クローム			
(11型)	イ7石入	市價7圓ノ品特價	2.70
	ロ7石入	9圓ノ品	3.95
	ハ7石入	13圓ノ品	4.99
	ニ7石入	19圓ノ品	8.50
(10型)	イ7石入	8圓ノ品	4.20
	ロ10石	9圓ノ品	5.90
	ハ15石	12圓ノ品	6.50
	ニ15石	19圓ノ品	8.75
(9型)	イ7石入	9圓ノ品	5.80
	ロ7石入	14圓ノ品	6.70
	ハ10石	17圓ノ品	7.90
	ニ10石	19圓ノ品	9.80
	ホ15石	18圓ノ品	6.90
	ヘ15石	19圓ノ品	8.35
	ト15石	23圓ノ品	9.50
	チ15石	27圓ノ品	13.45
(8型)	イ7石入	10圓ノ品	6.55
	ロ7石入	12圓ノ品	7.90
	ハ10石	15圓ノ品	8.75
	ニ10石	17圓ノ品	9.30
	ホ15石	13圓ノ品	7.50
	ヘ15石	16圓ノ品	9.10

必ず三割以上內金を要し 送金は振替か小爲替にて願升
前金注文の方は送料弊社負擔 代引の方は送料御負擔願升
天賞堂 東京淺草松葉町二十二 振替東京六八五七番

迅速
亢羅、春紗、生明紬、改良紬、明紬、交色 熱素、本絹熱庫紗、平安 苧布、麻布、鷄繭、生絲、石油
合理的經營法에依한生產品을 直接販賣하나
朝鮮平北寧邊城內 平安機業社
振替京城二三四七二番 電話寧邊二九番 私書函寧邊三番 時勢表進呈

朝報案內
開業就職自由 一個月卒業化粧品科、石鹼科實任 通信敎授(案內書要郵券二錢)京城府都染町七十四番地 松楠化學工業社 振替口座京城二五〇五三番

朝鮮官界の登龍門 普文試驗期日八月七日ヨリ京城中學校ニ於テ施行ト決定
發兌 文林堂 京城府永樂町一ノ七九 振替京城五四一七番

普文受驗者の必要缺くべからざるもの即ち本書
受驗準備に 敎務の上に!!
前に朝鮮總督府行政講習會講師として指導せられたる先生の基本ノートに補筆完璧を期せられたもの
最新 朝鮮行政法講義 法學士 山名酒喜男先生新著
定價金三圓二十錢 送料書留三十錢
第一版、第二版 豫約濟 第三版 目下發賣中

新新한 다이나 아비랑表

月刊 아이생활 六月號 特輯號
◇소꿉작란은 어린이의노리터……鄭仁果
◇각씨작란과소꿉노리 洪秉璇、崔以權、朱耀元、金昌俊、張貞心、金福任、李貞愛
◇그리워지는兒童生活 徐椿、崔奉則、金昶濟、劉瑩俊、李承晩、李殷相外七人
◇紀念懸賞當選作品 小說새벽하늘(長篇)……朴龍西 어린동무들에게부탁……康秉鎭 成大勳
地方支局大募 京城府齋洞二丁目九一 振替京城一五一五番 아이생활社
一年一圓 一部十錢

朝鮮赤松原木 廉價大賣出
產地—江原道高城郡東京帝國大學演習林
材長 一間(七尺) 二間(十四尺) 一間半(十尺五寸) 二間半(十五尺以上)
右材木의由來는李朝五百年以來皇定封山으로禁養해오던것인데自今三十年前부터東京帝國大學農學部演習林으로指定이된以後採伐을保護해온關係로樹齡은平均三百年이나되는松木으로柾目이緻密하고成長이良好하야赤味가多量하기때문에腐敗脂堪은勿論光澤이佳良함으로細工用建築用材建具用材化粧用材土木用材로三十餘年前부터日本內地에移出되고잇엇으나今年부터는數量이적음으로鮮內願買者諸位께廉價로供給코저하오며現今約三百萬才을高城驛頭에着着上陸시키는途中에잇아오니勿失此機하시고多數注文하여주심을敬要하나이다注文規定은原木及製材品을不問하고迅速注文에酬應하오며遠處로부터의注文은적어도壹貨車以上을單位로하고代金의二割을契約金으로맛겟읍니다
本店 江原道高城驛前 善益木材商會 同 協和製材所 振替口座京城一二三三
京城販賣所 京城府孝悌町二九七番地 電・光二六一六番
龍山販賣所 龍山驛前(漢江通一五番) 電・龍山一二一二番

모히代用藥 中毒治療 スパスミン ボリカイン ペチナール モルダイン 大田順天醫院

本日出發에際하야 多忙中임에도不拘하시고 一一히餞送하여주신에對하여는 깊이謝禮하나이다
五月二十九日 筒井竹雄 まさ子

南北大土木工事에 勞働者需要激增

그러나朝鮮人勞働者의能率不進으로

中國苦力의渡來를緩和?

총독부사회과에서는 재작년부터 로동이민을 계획실시하야 작년 재작년동안에 일만삼천여명과 금년봄에 수송한 삼천오백명을합하야 약일만육천오백명의 로동이민을 실시하엿다 물론이민송출에는 실패한것도 잇지만 최근에는 그성적이 상당히 조와진것도 사실인데 명년부터는 이로동이민이 남조선로동자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중지하게되거나, 또는 이민선발 방법을 고처야될 형세에이르럿다한다 즉 금년부터 중남부조선에는 한만개수 철도중앙선의신설 삼척(三陟)개발 경춘(京春)수인(水仁)량철도공사등 각종토목공사가 시작되야 금후약삼년동안은 토목로동자의 필요가 비상히계증하게되엇다 그러나 함경서북조선의 토목공사는 감소하는경향이면 금후에 점의 관계로보면 도리혀 증가할 형세에잇다 그럼으로 재래와 가리 남조선로동자를 서북조선으로 이민하여오든 이민정책은 금년부터는 실시할수업는 것이 각지방의 로동자수급(需給)상태이다 그러면 이와가리 조선전체의 각종공사경기가 비등하니 만치 실업로동자는 일소될가하면 그러치도 안타 도시에는 자유로동자의 실업군이 엇만허실하나 잇다 그러나 그들자유로동자는 토목로동에 부적당하야 로동자 자신도 능률을 내여지못하며 따라서 자본가측에서 환영치안는다한다 그러하야 총독부사회과에서도 금후 로동자의 수급조절에대하야 대책을강구하고 잇다는데 결국금후는 중국인로동자의 도래제한을완화하며 또도시의 자유로동자를 선발하야 각지의 토목로동자로 수송하는수박게 도리가업다고보고 잇는모양이다

즉시 강원도경찰부에 조회하야 그불량운전수를 단연 처벌하라 라한다

美色으로낙구어 詐食으로搾取!

市內에벌려진"카페""빠"의陷穽

또한사람걸려말성

최근 시내에『카페』『빠』등지 점등속이 이곳 저곳에 늘어남가는 고라지안분 현상인데 이에 따라 그폐단이 속출되는터로 특히 부당하게 노픈갑스로 음식을 떠글리치에 거의강제로 따는것이 적지안흔바 이십구일오전 세열시반부터 이십구일오전 세시까지에 시내도염정(都染町)일백집칠번지 광명(光明)『빠』에서도 하나를 사고파서명의 녀급이 이십여원어치음식을 팔엇는데 적옥(赤玉)포도주 한병에사원사십전이라는 엉터리갑스로 도들바다 이것이 드디여소관 종로서원에게 알리워원.으로 송치를 바뻣는데 경찰에서는 영업시간을 넘어서 허가한녀급수이상의 녀급이로 이러한 부정영업을하는 음식점에 대하야는 금후 엄중히 처치할터이라고한다

傷人逃走한運轉手

이십팔일 오후한시반쯤되여 시내 태평통(太平通)이정목구십번지 교본(橋本)이라는자의집에 고용사리하고잇는 리수천(李壽千)(三)은 자전차를타고 황금정(黃金町)사정목에서 영락정(永樂町)쪽으로가든중 황금정사정목 이백칠십일번지 앞길에서 광(江)잡 백십팔호 화물자동차에치어 다행히 부상은안하엿지만 자전차 체대가 바사젓다는데 그운전수는 이를보고 그만다라낫다하야 이보고를 접수한 본정서에서는 그운전수를 엄탐중이다

六十二時間連燒로 四十萬株를燒失

六百名動員鎭火、損害四萬圓

北青大山火의後報

【咸興】 속보=저간 이십오일부터 동이십팔일의 오후십일시까지 전후십여간동안 계속해타고잇든 북청군하거서면하룡리(北青郡下車書面下龍里)의 대산화는 그후 조사한바 소실면적은 총일백팔십정보로서 이십만내지 사십만본이 넘는 적송(赤松)사십만본을 모조리태워버렸다는데 그손해는 사만일천여원의 거액에달하며 그불을 끄느라고 출동한 인원은 륙백여명이며 원인은즉 벌목작업을 하든인부들이 담배불을 떨어트린것이라한다

一夫多妻의別世界 生活權은女子에

廿餘朝鮮同胞、大槪、人蔘行商

印度支那의實情談

시내 사직정(社稷町)사는 김영건(金永鍵)(三七)씨는 불란서령에멀리 안남(安南)서울하노이에 잇는 동양학원(東洋學院)도서관원으로 조선에게서 여러까지 근무하다가 오래간만에 이십칠일저녁에 조선에 도라왓다 안남은 불란서(佛蘭西)의

=속국= 으로 열대지방(熱帶地方)에잇는 나라이며 도한 조선과는 멀리 저로 교통이 업는 나라이다 이나라에 가서 문물(文物)과 풍속을 살펴보고 또는 연구하고 도라온 정평한 김씨를 차저가서 긔자는 그곳에잇는 조선동포의 소식과 여러가지 재미잇는 이야기를 들엇다 ◇다음은 김씨의 실담이다◇

인도지나(印度支那)쪽 안남이란 나라는 지폭이 광대한 나라이므로 전부를 다 구경하지못하여서 다른 지방의일은 잘 모르겟스나 내가잇는 『하노이』(河內)와 그근처 『하이퐁』(海防)이라는 두곳에 조선동포가 이십명가량 잇는데 그가운데에서 살림을 하는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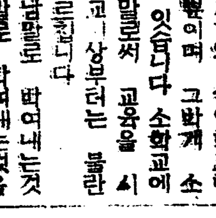
=두집= 이 잇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모다 인삼행상인데 벌서 그곳에 가서잇는지 십여년에도 잇저따는 아직성공한 사람은 한명도업고 근근히호구는 되어가는 형편입니다 살림을살고 잇는집 자녀들은 안남사람의 소학교에 입학하야 가리 공부를하고 잇습니다

◇

안남사람의 문화정도는 아직유치하여서 교육기관이라는것은 시설이별로 보할것 업습니다 소위 서울이라는 하노이에도 대학한개(전국에서 한개뿐이다)와 관립중학교 한개와 사립중학교세개와 실업학교한개가 잇슬뿐이며 그밧게 소학교몃개가 잇습니다 소학교에서는 안남말로서 교육을 시키고 중학교 상부터는 불란서말로 가르칩니다

신문은 안남말로 박여내는것과 불란서말로 박여내는것을 합하야 종류가

=무척= 만흔데 일간(日刊)혹은 격일간(隔日刊) 주간(週刊)등 여러가지가 잇습니다 안남사람들의 사상적 경향이라는것은 별로 드러나지아니하며 그가운데서도 불란서의 지배를 환영하는 파(派)도 잇고 공산주의에 흥미를가지고 잇는이도 약간 잇다는 말을 드럿습니다 안남사람들의 직업은 대개농사이며 공장은 몃군대잇스나 모다 불란서사람의 경영인데 로동자는 안남사람들입니다 거긔서 아직 로동조합(勞働組合)이라는것은 생겨날 정도가 못되여잇습니다 안남에서 상업의 패권을 가진사람은 중국사람들로서 그들의 상업의



=세력= 이은 불란서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도저히 당하지 못하게 되어잇습니다

◇

안남사람들은 대게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짓고잇는데 광창한 대지주가 만습니다 중농(中農)이나 소농(小農)은 별로 업고 그대지주에게 종속되여잇서서 그들이 농사를 지여주는 형편인데 그들의생활이라는것은 거의 원시상태와가리

=저급= 합니다 집이란 것은 가지가지 못하고 그저나무가지로 얼거매여서 비나 피할만큼 맨드러노코 거적대기 가튼것으로 몸을덥고 누어잡니다 중국『쿠리』보다 더저렬한생활을 하고잇습니다

안남사람들은 예전부터 한남편이 여러안해를 데리고사는 풍습이전해 와는데 그것은지금도 그리하고잇서서 한남자가 안해열명가량은 보통으로 데리고 살고잇습니다 그러나 농노생활을하고잇는 그사람들은 그러케 만히데리고살지는 못합니다 이와가티 만흔

=안해= 를 거느리는데 그가정평화는 어떠케 유지되여 가는가하면 제일부인이 그다음의 부인들을 통솔하며 아래로나오는 부인들은 제일부인의 명령에 절대복종합니다 그러고 도한가지 이상한것은 그가정중 안해를 가진 남편이 그안해들에게 절대복종하고잇는 풍습입니다 경제권(經濟權)은 전부 안해들이 쥐고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알수업스나 남편은 그여러안해에게 대하야 항상 허리를굽실거리고 그명령을 복종하고 지냅니다 안남녀자들의 정조관념이라는것은 좀 란잡한편이며 조선과가티 남녀간내외하는법도 업습니다 그리고 안남처녀들은 어느나라사람이든지

=실허= 하지안코 서로 사랑하며 결혼합니다 다홍인종(紅人種)이거나 백인종(白人種)이거나 흑인종(黑人種)이거나 조금도 가리지안습니다 결혼하는데 잇서서 조금도 국경의 관념이 업습니다 안남의 긔후는 이월부터 사월중순까지가 조선늦봄이며 늘 구름이 끼여잇고 습긔가 잇습니다 그밧게는 늘 여름과 흡합니다(사진은 김영건씨)

自殺의三重奏

그들은웨죽으려햇나?

失行한處女

절무나 젊은선남선녀가 실연 실직 생활난등등으로 앞길이 천리만리가튼귀중한 생명을 자귀손으로 끈허버리는 사건은 언제나 사람들의 가슴을찌르는 인생비극의 심각한것이다—시내 전농정(典農町)팔백십팔번지 김옥선(金玉仙)의집에는 이십팔일밤 열한시쯤되여 어떤 꼿다운 절문녀자 하나이와서 숙박을 청하엿는데 새벽두시쯤되여 갑작히 고민하기시작하는것을 전긔 안주인은 깜짝놀라 근처에잇는 세일의원(世一醫院)에 입원식혓스나 양재물을 원체만히먹어 생명이위독하다고한다 유서에의하야 그는 경기도가평군가평면읍천리(加平郡加平面邑川里)에사는 윤석(尹錫)의 딸 경수(京洙)(二○)라는 처녀로 시골사는 유모(柳某)(二○)라는 청년과 사랑을 속사이다가 동리사람들의 아는배되여 처녀의몸으로 그치를 참을수업서 가만히 홀로 서울로 도피행을 오기는하엿스나 나 도엇든 절로돌이라 생각다못해 이실청춘을 청산하여버리라고하엿든것이라고 한다

失職한青年

이십팔일 오후 여섯시쯤에 시내 봉래정(蓬萊町)삼정목칠십사번지에 사는 정선일(鄭善一)(二二)은 다량의 양잿물을먹고 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들이 발견하고 곳세부란스병원에 입원식히고 응급치료를가하엿는데 생명이 매우위독하다하며 원인은 작년까지 소화자동차공작소(昭和自動車工作所)에 견습으로 다니게 되엿섯는데 지난 이십일일 해고를 당하고 세상을 비관한나머지 그와가티 자살하려든것 이라고한다

疾走自動車에서 通行人一名即死

楊平郡楊根里路上에서

경기도양평군 강상면 화양리(楊平郡江上面和陽里) 장순남(張順男)(二)은 이십팔일오후 한시반에 그고을 그면 양근리(楊根里)앞신작로에서 경성 권농정(勸農町)육십일번지 운전수 강봉수(姜奉秀)(三)가 운전해가든자동차에 바치여 머리가 깨트러저서 즉사하엿다

운전수는 강원도 제오칠호 자동차를 운전하야 양평서 속력을 내여 질주하든중 전긔장소에 이르럿슬적에 별안간에 피해자장순남이가 자동차압길에 뛰어나왓스므로 급히 정거를하엿스나 마친내 바치여 즉사케 되엇다 라한다 운전수는 방금그곳경찰서사법계에서 문초를 밧고잇다

嬰兒遺棄

이십팔일오후 시내동교정(東橋町)이삼십사번지 방구이(方九伊)의 집앞에 나흔지 사오개월가량된 유동자를 강보에싸서 유기하엿는데 주소성명 생년월일등은 알수업스며 소관 서대문서에서는 발견공작에 대하야 시인도한후 범인을 엄탐중이다

貧困한學生

빈곤(貧困)의몸으로 학업을 닥고자 상경한 석용청년이 틈이외 생활난에 부대치여 자살하려든사실이 잇다 이십팔일오후 시내 평동(平洞)에 하숙하고잇는 남대문자동차학교(南大門自動車學校)생도 최용남(崔龍男)은 다량의 약을먹고 신음하는것을 발견하고 동광의원(東光醫院)에 입원식혀 응급치료를 한결과 겨우생명만은 부지하게 되엿는데 그는 본시 강원도홍천군 신남면(洪川郡新南面)의 농가에서 자라 그곳보통학교를 거처 실업을 겨우 졸업하야 가지고 상경하야 크게 성공할망으로 위선 자동차학교에 입학하엿든것인데 순박하던 농촌청년의 눈에 도시의 관숙한 유혹이 적지가되엿던지 어언간 가지고온 금전도 다소비하여버리고 공부는 더할수업고 시골에 내려갈 면목조차업서저서 고만죽어버리려한 것이라고한다

起工을承諾안하면 强制處分도不辭

反對地主에對한當局의態度

紛糾中의咸惠線用地問題

【咸興】 장진강수전 제수지공사관계할배하야 북측이 그위지를 변경하야 계획한 합자선(咸惠線)이 통과하는 지주와회사간에 용지가격의 대차로 협정을보지못하고 분규를 거듭하고잇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지금에 이르러서 동문제는 단지도 파는니 안파는냐 하는 문제가 지가격으로 인하야 생긴것뿐아니고 위선도로 공사를하겟는데 장진군수와 화잠차장이엽헤나서서 가지주들에게 긔공승락(起工承諾)을 요구하야 도한문제는더욱 분규만거듭하고 잇다 장진군수와 경찰서장의말을 드러보면 지가격의 협정은회사와 직접교섭할 문제로서 우리의 관계할배아닌즉 당국의책임인 도로공사에대하야 긔공승락을 말하여달라는것인데 사실여하의 지주들과의 약이 실여녕은 역시회사와 지가격에대하야 철저한 협정이 업는한 긔공승락만 한다는것은 금후회사와 불리하게 될것이라고하는데 이에대하야 당국의 의견을 타진하야보면 만일지주가 끗까지 승락하지안는다면 강제처분이라도 할수밧게업다는데 그는 도로공사는 여름 홍수기까지 완성하기로한 형세에 잇스므로 당국으로서도 매우조급한 경우에잇다고하며 강제처분은 단지 시간문제가아닌가 추측된다 일편을 응한 지주들은 금후에 어떠한 태도를 취할는지 극히주목된다

鴨綠江上을目標로 土兵團이掠奪暴行

廿六、七日의四件以後또三件이連發

騷然한平北對岸과東邊道

【警務局着電】 이십륙일 량명에 평북대안에서 압록강을 상항하는선박을 습격한 반만군사건은 네건이나 발생하엿는데 이번에 또다시 세건이 발생하야 압록강을 사이에두고 평북과그대안 동변도(東邊道)는 대단히 소연(騷然)하야 극히불안한 상태에잇다한다

▲이십팔일 오전팔시반에 초산외면(楚山外面)출장소 대안인 관전현로인구(寬甸縣老人溝)에 계통이 불명한 무장단 사십명이 나타나서 압록강을 상항중인 선박을 습격하고잇는것을 그당시 강안을 경계중이든외면출장소 길전(吉田)순사부장이하 데명이 발견하엿는데 무장단은 경관에게 발포하고 다시조선측에 향하야 발포함으로 방금응전중이다 일방내연(內淵)옹암(甕岩)량출장소와협력하야 도망하는 무장단을 벽동군북면북하동(碧潼郡北面北下洞)의대안인관전현방면으로 추격하고잇다

▲이십팔일 오전구시에 벽동오대청구촌권창구(大淸溝)강안에 무장단오명이 나타나서 상항중인배 네척을 습격하고 백미집오포와 옷여섯점현금오원여를 강탈하여 가지고 갓다

▲이십칠일 오전네시에 창성군운두구(昌城郡雲頭)출장소의대안인 단비채구(段韭菜溝)에 륙십명의 무장단이 와서 배를 습격하려한다는 정보를 밧고 출장소에서는 김성발(金成發)이라는청년을 월경식히어 정찰하엿든바 검은무장단에게 체포되야 도리여 이쪽상항의 조사를 밧게되얏슴으로 출장소에서는 강진(江津)부장이하 륙명이월경하야 김성발을 탈환하고 무장단두명을 총살하고 두명을중상식히엇다

가는곳은어데메!

다라난사람 찾는사람

▲수원하북금==시내 창신정(昌信町)이백칠번지 박재식(朴齊植)의안해 안술신(安戌申)(三)은지난 이십팔일 일곱살짜리 어린아이를데리고 어데로인지 가버렸다고 남편이 동대문서에 수색원을 제출하엿다 한다

▲경기도장단군강상면 마성리(長湍郡江上面馬城里) 김경순(金慶順)은 지난 이십일 서울가서 오겟다고 나간후 그대로 행방을 모른다고 가족이 찾는다

▲돈의정(敦義町)일백사십사번지오 고용살이하는 김인관(金仁寬)(十)은 어기여(奥基億)의집에서 고용살이하다가 지난이십일 집을나간후 그대로 행방불명이되여 찾는다고한다

▲시내수송정(壽松町)일백팔십삼번지 신귀구(申貴求)의 장남 신정봉(申正奉)(二)는 오래전에 집을 나가고 안도라오는데 그의 아버지가 백여 원이나 가지고 나갓다고 한번 보고 죽겟다고 그 수사원을 내엇다

電車속에서술주정

이십구일 오전령시반가랑되여 경성역(京城驛)에서 삼각지(三角地)쪽으로 가는전차가 련병정(錬兵町)부근을 지나가든중전차속에서 승객한명이 술이몹시취하여 함부로 날뛰며 남녀승객들에게 가진 폭행과 욕설을 하고 잇는것을 소관룡산서(龍山署)원이 그서로 데러다가 문초한결과 이 사나이는 강긔정(岡崎町)팔십사번지의 십삼호에살면서 경성전긔회사(京電)전차과 기수(技手)로잇는 생전모(生田某)(二)로 류치장에 들어가서 간수에게 온갖욕을 퍼부으며 폭행을햇스므로 아직도 류치중이라한다

排球를窃盜

십칠세의 소년절도가 도적질한 ...

朴泰華氏歸國

미국로스안젤스에서 정구선수로 활약하든 박태화(朴泰華)(三)씨는 체미십여년만에 지난십일일귀국하엿다 씨는연전(延專)출신으로 일천구백이십오년에도미하야 오하이오대학과 서부대학에서 사회학을전공하야『엠·에이』의 학위를 어든후 북미『로스안젤스』에서 일천구백삼십이년부터 변삼년동지방 정구선수권을 획득하엿다하며 씨는이삼일간경성에 체류하다가 향리인 평북녕변(寧邊)으로 향할터이라는바 압으로는 실업방면으로 진출할터이라한다 (사진은 박태화씨)

金警部는釋放

【平壤支局電話】 긔보=현직경관의 독직사건으로 말미암아 신의주검사국의 령장에의하야 지난이십팔일 오전중에 평양지방법원검사국에 검속된 전대동서사법주임 현순천서 사법주임(順川署司法主任) 김긔조(金基祖)경부는 대강취조를맛고 동이십팔일밤에 석방되엿다한다

天氣予報

概報 七五一미리의 低氣壓은 北中國及 南滿洲에잇서모다 東進中이다 高氣壓은 朝鮮과 本州西部에 七六二미리의것과 千島方面에 七六四미리의것이잇다 中國及滿洲는 霽雲이며 朝鮮及本州西部는맑다 關西地方以東은 흐리나 關東地方及南西諸島는 降雨가잇다

豫報 오늘밤京城地方은 좀흐리며 明日도흐리다 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	最高	二十三度
同	最低	十二度七
今朝	最低	十一度五
今日	正午	二十三度

運動競技

朝鮮柔道有段會 柔道紅白試合

六月十三日에擧行

朝鮮柔道有段者會主催의 柔道紅白試合은 來六月十三日午後一時半부터 府內中央青年會講堂에서 擧行할터인데 各學校柔道部에서는 大衆的武道普及을 爲하야 多數參加하기를 바란다고하며 申込期日은 六月十一日까지 中央基督教青年會內 朝鮮柔道有段者會로 申込하기를 바란다고한다

日本陸上의國際

聯盟提出議案

日本陸上競技聯盟에서는 廿四日의 理事會에서 決定한 다음의 諸案을 來八月 伯林에서 開催될 國際陸上競技聯盟總會에 提出하기로 되엿다

一、國際陸聯과 國際女子스포ー츠聯盟과의 關係를 明確히할것

二、三十米障碍의 障碍物의 寸法及 位置가 區區함으로 그統一化를 提案할것(原案은日本案을作成)

三、暫定記錄(公認)을 撤廢할것

四、走高跳、棒高跳等의 高位計測에는 日本陸聯에서 使用하고잇는 正確한 計測尺度를 採用할것

그리고 今秋의 全日本選手權大會는 十月卅一日과 十一月一日에擧行할것과 出發信號用으로서 正式拳銃以外에 信號旗使用을 公認하게되엿다한다

올림픽蹴球代表팀 慶應軍에게敗退

올림픽蹴球代表軍對慶應大學蹴球戰은 二十六日午後二時四十分부터 動銀運動場에서 慶應先蹴으로 開始한바 代表軍은 西邑選手의負傷으로·FW의 攻擊이低下한데다가 HB線FB線의 連絡不良하야 後半에 慶應軍에게 四點을빼앗겨 結局四對二로 代表軍이 敗하엿다

慶應 4 (0…0 / 4…2) 2 代表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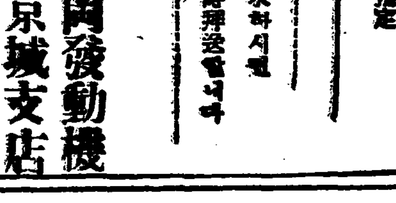
米國陸上漸次强化

米國陸上界 伯林올림픽을目標로하야 자못活氣를띄우고잇는바 西部協會競技會에서는『오웬스』가 曲走路二百卅碼에 二十一秒一의記錄을지엇다. 其外에도『오웬스』는 萬能的技術을發揮하야 百碼、低障碍、走幅跳의三種目에도 優勝하엿는데 强한相對者가업섯든 南部會議選手權大會에서는『포어레스트·타운스』가 百十米高障碍에 一四秒一의 世界新記錄을지엇스며 西部大會에서는『오스굿』이 百廿碼障碍에 一四秒二의 世界타이記錄을 作成하엿다 其他에도 西部大會의收穫으로서는『덴』의投圓盤五二米二五의 大記錄을 비롯하야 四百四十碼障碍에는『하딘』이 五二秒九、四百四十碼에는『에리오트』가四八秒八、八百八十碼에는『떼-쌍』이 一分五二秒四、二哩레-스에는『라쉬』가 九分一九秒九等의 好記錄을 남기엇다 그리하야 올림픽大會가迫頭함에따라 米國陸上界는 漸次로 戰線을强化시키고잇다

뽀로드라組優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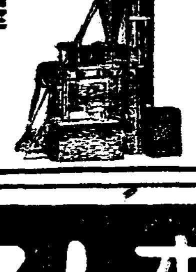
【오-드이유(巴里)發電通】 全佛庭球選手權大會 複式決勝戰은二十五日 當地에서 行한바 佛國떼조選手뽀로드라組는 英國떼조選手휴-즈組를 다음의 스코어로 이겨優勝하엿다

뽀로드라 벨날 (佛) 6 9 3 6 — 1 7 6 2 휴ー즈 레키ー (英)



【二重選手說明】 伯林올림픽大會에出場하는 米國籠球代表팀인데 同팀의『펠리』는 身長이六尺九寸이라하며 이번올림픽에唯一한 優勝候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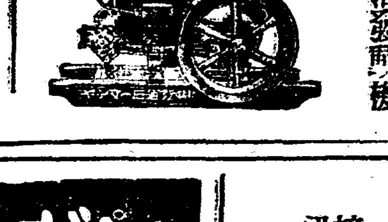
力武式製粉機



農林省比較審査에서 第一位入選 取扱簡易能率多大

各府郡指定

御照會는請求하시면 即時呈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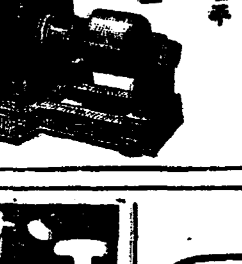
横型 石油發動機

얀마ー石油發動機

十九吋大小各種 一馬力半以上 十五馬力

얀마ー디ー젤엔진 얀마ー뽐프

三大特徵 一、揚水量倍大 所要馬力僅少 價格低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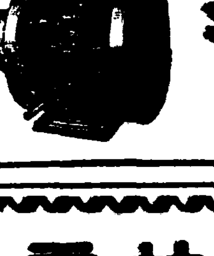
口徑二吋以上

얀마ー渦卷뽐프

今年도역 揚水와排水할 時期가되엿습니다 얀마ー뽐푸를

横型 三馬力以上十五馬力

專賣特許 三點으로서絶對優秀 適於率을不許한燃料費一 節減(每時一馬力當)



十馬力以上 百馬力

原動機와作業機는 무엇보다도 얀마ー의製品 얀마ー

發賣元 株式會社 山岡發動機 京城支店 京城府 電話本局長一〇〇三番

山葉ピアノ オルガン

新發賣 山葉ピアノ 平臺30號

子女들을爲하야 반드시一臺를!

피아노 金五百圓부터 오루강 金三十圓부터

月賦販賣 目錄進呈

創業後 五十年 資本金 四百萬圓

日本樂器會社 京城本町一丁目

宴會場新築落成

家族席 宴會席 設備完全

接客親切 迅速酬應

朝鮮料理 飲碧亭

京城府城北町一三 電話光化門 七一五八 五六

江華純産 花紋席 麻布 江華紗 江華紬

여름한텐 고르고 둔 삼베옷감

代金引換 要一割以上 先金運賃當社負擔 特約取引契約을希望하시는분은卽時照會하시옵

京軌遊園地로 東大門—遊園地間 二十五分(三十分마다)發車 車賃往復 二十錢 團體는 特別割引에應함 修養散策에絶好한綠林 大本山 奉恩寺로

遊園地內에는 荒川食堂 引網·投網·各種도具備

京城軌道 東大門 電話光二九六七·二九五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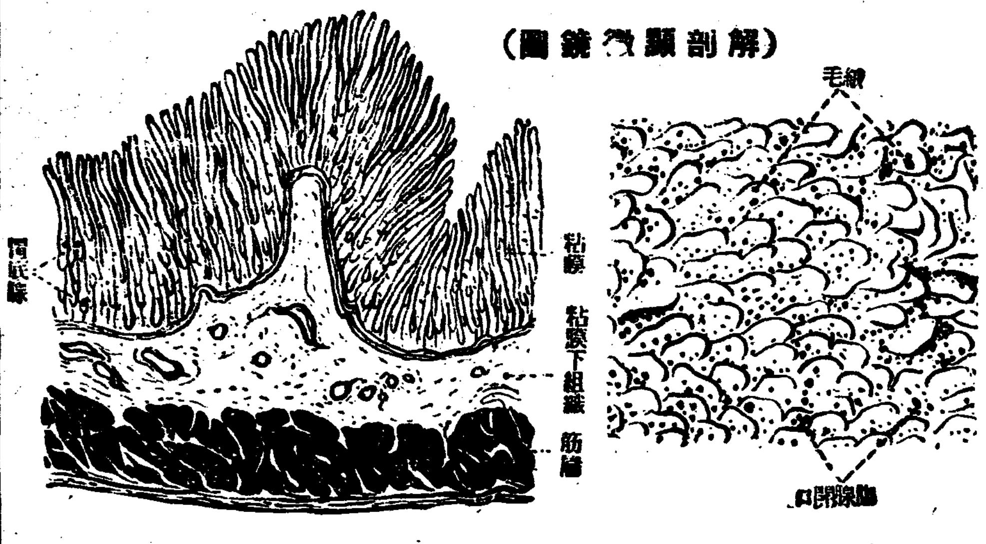
瓦斯入林電球

朝鮮唯一의大工場에서 產出하는優良鮮產品

林電球製作所 京城下新堂町四〇九 電話本局 五二六一番

特約店募集 全朝鮮

WAKAMOTO HEFE THERAPEUTICS



胃壁의縱斷面擴大圖
胃液은胃底腺에서粘膜에開口하는 胃小窩를通過하야分泌된다

空腸粘膜의擴大圖(十五倍)
表面을덥흔輪狀壁과絨毛에依하야 養分吸收面은顯著히擴大된다

헤ー꿰菌劑의最高標準

『わかもと』가 헤ー꿰菌劑인까닭은 如何한 헤ー꿰菌劑라도『わかもと』와가튼 效果를내리라고 想像하는傾向이 적지안치만 그것은 큰誤謬이다 헤ー꿰菌은 數百種의菌種을 包含한 一屬의 微生物이 附與한 名稱으로서 麥酒釀造에 使用되는 麥酒酵母도 數十種으로算한다 그런菌은 種類가 다름을따라서 各各成分에 相違가잇고效果도·또 當然히 大差를낸다 그大部分은 何等效果가업는것이다

헤ー꿰菌劑는 各科의疾患에 널리使用되므로 對症療法에 依하지안흔 綜合的效果를 發揮하는것은 그細胞原形質賦活作用이잇는까닭이다

『わかもと』는 그菌種의 選擇培養製劑에 世界的硏究를 結晶식힌것으로 그 細胞原形質賦活作用의 强力한것은 創始以來僅僅數年으로서 今日의 莫大한 需要를 喚起한것을 보아도 알수잇슬 것이다

『わかもと』가 갓고잇는 藥效는『わかもと』特有의 헤ー꿰菌에 依하야 비로서 어들수잇다는것을 明記한다

多摩川河畔에잇는わかもと東京工場의大觀

新生物藥에依한 慢性胃腸病의綜合療法

難治의理由는胃腸組織의無力狀態때문에

胃腸疾患은 急性胃가다루 或은 腸가다루等의 小數疾患을 除한外에 大部分은 慢性이되기쉬운傾向을가젓다 特히 胃酸過多症、胃아도니ー(胃弱)消化不良、 胃腸가다루、便秘等은 慢性胃腸病中에 가장 多數를 占領한것입니다

此等慢性胃腸病의治療는 醫師던지 患者던지 長時日에亘하는忍耐가 必要하다 患者는 相當히重한 食餌의制限을 嚴守하고 服藥을持續하지만 病勢는一張一緩이잇서서 거이 治療가 無效하지안흔가 생각되게하는境遇가만하서 患者는 醫師를차저 도라다니다가 醫療에對한 信賴를 일코 여러가지 民間療法 非醫師的療法에 希望을求하게됩니다

慢性胃腸病을 治療하기 힘든것은 胃腸組織이 長時日의 衰弱으로 一種의 마라스무스(無力狀態)에 떠러저잇는까닭이다 이에對하야 從來에 쓸데업는 保護的療法을 代身하야 組織細胞의機能을 振作식히는 自力更生的의 療法에依하야 보다迅速하고 보다本質的인 治療의目的을 達할려고하는것이 慢性胃腸治療의 새로운 길로서 特殊헤ー꿰菌劑『わかもと』의賞用되는理由도 이곳에잇다.

病衰된組織細胞에自然治癒力을賦與

無力狀態(마라스무스)에 떠러진 胃腸組織을 自力的으로 恢復한다는것은 換言하면 胃腸의自然治癒力을 增强식히는것이다

헤ー꿰菌劑『わかもと』는 病衰된組織細胞에 自然治癒의 活力을주어 健全한機能을 다할수잇게하는 細胞原形質 賦活作用을 特長으로하는 慢性胃腸疾患에 共通되는 胃腸組織의 衰弱異狀變性等은 이作用에 依하야 正常의狀態에까지 恢復되여 消化液의分泌 榮養의吸收 筋肉의 緊張運動等 어떤것도 固有의生理的 機能을 營爲할수잇게한다 이機轉은『賦活액티비ー젠』이라고하는 文字에依하야 가장 잘表現되고잇다

그리고 中心이되는 이作用을 補佐함에 여러가지對症的效果를 갓고잇는 만흔成分이잇다 各種의消化酵素 또 그酵素와共働하야 作用을增進하는 助酵素、胃腸의機能을 昻進식히는 비타민B 微量으로서 生理的主要性을갓고잇는 히스치진 도립도판 其他의 高級아미노酸 꿀타치온 無機物等等이다 此等 各其固有한 對症的效果를 갓고잇는成分이共働하는故로 前記의 細胞原形質賦活作用과 相應하야『わかもと』의慢性胃腸疾患에對한 效果는 一層豐富하게된다 이意味로부터 말하면『わかもと』는 周到하게 處方되여잇는 複雜한投藥과가튼것이다『わかもと』가 一面에잇서서 綜合療法의藥劑라고하는것은 이까닭이다

上記와가티『わかもと』는 慢性胃腸病에 對하야 組織細胞에賦活하야 自然治癒能力을 發揮식혀서 慢性衰弱에陷한機能을恢復하고 在來에化學製劑에 볼수업는 效果를엇는데 더욱主要한疾患에對하야 個個의 效果를略記하면ー

溜飮症 (胃酸過多、及び無酸症)

가슴아리嘈雜空腹時에胃部의 苦痛을主徵으로하는病症은 從來는 胃酸過多에基因한것으로 생각하고잇섯다、

그러나 其後診斷法의 進步와가티 이러한症候는반드시 胃酸過多에만이러나는것이아니라 反對로胃液의 分泌或은 胃液中에酸이 稀少한境遇卽減酸症、또는 無酸症이라고부르는 病狀에 잇서서도이러나는것이 分明하므로 一括하야溜飮症이라고부르게되엿다、

그래서 在來의重曹와가튼 아루가리를 給與하는것은 胃酸過多症의境遇에도 臨時的이 弊害잇다고하든것이 萬若 그것이 無酸症인境遇에알지못하고 給與하면 그害는 論할餘地가업다、化學製劑의 危險은이런곳에도潛伏하여잇다

그런데『わかもと』는化學的으로 酸을中和하던가 分泌를抑制하던가하지안코 胃腺細胞에作用하야 그病的變化를바르게하고야 胃酸分泌의昻進을抑制하고 萎縮된것을 活潑하게하야 正常의機能에로도라가게하는故로 어떠한 原因으로부터온 溜飮症에對하여서든지 效果를發揮하고 重曹劑와가튼 弊害의念慮가업다。

胃アトニー (胃弱)

胃아토니ー는 胃弱이라는 別名이보이는바와가티 胃筋肉의 衰弱으로因하야 그緊張을일어所謂食滯를 이르켜 攝取한食物을腸에보내는것이 大端히떠서 食物의胃內醱酵로부터 噯吐或은消化不良性의 泄瀉를同伴하게된다

이것은 慢性胃腸病中에도 治療效果가容易히 보이지안는것으로 될수잇는대로 食物의胃內通過를迅速히하기爲하야 粥과가튼 水分이多量하고軟한 食餌를少量式攝取식히는것이다 그러한低榮的食餌療法도오래하면 오히려 胃腸의衰弱을漸漸助長하야 一般榮養의 低下와相伴하야自然治癒力의 發現을妨害하는 結果가된다、

『わかもと』의 細胞原形質賦活作用은먼저 胃의組織細胞의 新陳代謝를 活潑히하야 病衰한細胞를 健常한細胞로代身하야 그組織을更新하므로 胃筋의緊張이 恢復되여 飮食物의胃內通過가迅速하게되며、食後에胃部膨脹壓迫感과 食滯의感이除去된다 따라서 食餌도低榮的인消化性인것을 要하지안코、普通食餌로서는 空腹을感하고 嘔吐와泄瀉를이르키지안케된다

腸カタル (慢性下痢、消化不良等)

腸가다루도 急性症의治療를 그르치어 一旦慢性病이되면 容易히治療하기어려운疾患이된다。가장만흔徵候는 泄瀉로서 每日一回乃至二三回에이르는 患者는食餌에對하야 極히怯이나고 泄瀉를 誘發할念慮잇는飮食은特히注意하야避하므로그때문에 自然히 偏食的이되고 榮養의低下를 이르키는일이만타 慢性腸가다루에는 腸管의過敏性이非常히높하진다。食餌의變化에對하야서는 勿論 氣溫의影響에依하야서도 容易히 泄瀉를이르키고 運動으로서도誘發된다

이러한 過敏性은 消化劑의 補給이라던가 收斂劑에依한分泌의制限으로서 矯正할수는업다『わかもと』의 細胞原形質賦活作用은 腸管의組織細胞의狀態를一變식힌다。過敏性은업서저서 生理的本然의 機能으로도라가는故로 消化作用도活潑하여지고 여러가지榮養食品을 攝取할수잇고 便通도 또自然의狀態가된다。

그래서 이것을補佐함에 含水炭素、蛋白質、脂肪等各各消化酵素를包含하고잇스므로 꼭消化劑를併用하는것과가튼效果를낸다

わかもと (와가모도) 胃腸榮養

藥價低廉 一圓六十錢
粉末九十五瓦·錠劑三百錠

全國藥店에서販賣하지만당發賣元에서送藥을 바라는분은藥價만送金하시면一個라도急送함

東京市芝公園大門前·振替東京一七〇〇番·電話芝代表一一七五番
株式會社 わかもと本舖 榮養と育兒の會

家庭

철다겨나온 오이 료리법도달르게

소박이나장앗찌는 아주멋적다 그향긔를업새지안토록

요사이는 촉성재배(促成栽培)로인하야 모든 푸성귀가제철을 다기어서도 반상에 오르게 됩니다만은려 구나오이와 가튼것 은 오월이 되어야 나오든것을 삼사월이바쁘게 여긔저긔 반찬ㅅ가가에서 벌리어노코 팝니다。물론 아모래도 제철가티 흔하지는 못하야 갈도 조금 비싼폭입니다만은 요사이는 비싸도한개에 불과시 이삼전으로 밧듯이 돈잇는사람이라야 자시게 될 것도 아닙니다。그러나 그러케귀한 오이로다가 장아찌를한다거나 소백이김치를한대서야 넘우나 헤픈살림이 아닙니까? 요만때 오이는 요만때로 독특한 요리ㅅ법이잇습니다。

오이에는 독특한 냄새가 잇서서 그것을 외이ㅅ내라고 합니다。오이가 한참 퍼젓슬때는 이 오이ㅅ내가 맛기 실혀지기때문으로 될수 잇는데까지 그냄새를 빼고 먹게 됩니다。그러나 지금쯤 나오는 오이는 냄새도 그다지 과치안 할뿐이 아니라 도리어그 냄새가 향긔로워서 그대로 자시는 것이 조흡니다。지금오이를 소금에 몹시 저린다거나 양념범벅을 해서 자신다면 그야말로 음식솜씨가 말슴 못되는 분입니다。그러면 어떠케 해 먹으라고요?첫재는 되도록 날로 먹을것 둘재는 되도록 소금에 저리지 말것 셋재는 되도록 양념을 만히 너치 말것입니다。그러타고 설마하니 어적어적 날오이를 먹으라는 의미겟습니까?멧가지 요리방법을 소개하오리다。

×

(오이회)오이를 둥근 몸ㅅ동이 그대로 동전끔케 얄시 썰어설랑은 고대로 널분접시에담읍니다。아모리 넓은 접시라도 한 서너개쯤 그러케 썰어서 족 놋는다면 한접시 반찬이 버젓이 될만큼 충분합니다。그러고 초고치장 즉 눈즙을타서 찍어 먹습니다。초고치장 대신으로 진간장에 고춧가루를 타가지고 찍어 먹어도 좃습니다。

(오이채) 오이생채는 아닙니다。그것은 초를 넛는다 기름을 넛는다 아조 재미업습니다。날 오이를 생채처서 야모 양념도말고 오족 진간장에다가만 부치어 먹습니다。연한 살코기를 따로 복가서 섞거 놋는다면 맛이 더욱 신통해집니다

×

(신식오이선) 몬저 재료로 오이 다섯개、쇠고기 반의반근、면보 한근의 사분지일、다마네기 반개、계란한개에서 노란자만 뽑은 것、그러고 호초ㅅ가루와소금 약간을 준비합니다。마치오이선을 맨들듯이 두귀를 자르고서 다시 그중간을 이리저리 쪼기어 속을 파냅뒤 곱게다진 소고기와 잘게채친 다마네기와 물에 적신 면보를섞고로 섞는동시 호초ㅅ가루와소금을 조금 치고 계란노른자를 씨워서 오이속에다가 박고써 끓는 물에 너허서 익힙니다。물에 너흘때 오이의 아래우로 뜨거운 참기름을조금 부어 두십시요。그러고물에다가도 소금을 조금 타서 오이에 배도록 해 두십시요 이것은 조곳이 만히 들어가나 그래도 우리 오이선처럼 젓연 오이ㅅ맛이 업서지지는 안습니다 별미삼아 한번 해 잡수시도록 하시기를 청합니다

童話 도야지의시조

劉一千

옛날 깊은산중에 여호한마리가 살어잇섯습니다 여호란놈은 아조 약기는하지마는 힘이무척 약하여서 산즘생이라고는 하나도 잡아먹어보지못하엿습니다。한번은 배가몹시곱허서 하는수 업시 사람죽은 무덤을차저가서 송장이나 파먹으라는생각으로 길을 떠낫습니다 이꼴짝 저꼴짝 종일토록 차저도 사람이죽은무덤이라고는하나도만나지못하엿습니다 이때는 가을철이되여 산의나무닙들은 노러케 물들어 잇섯습니다

여호는 할일업시 길을 좃아서 자긔의집쪽으로 행하얏습니다 여호는 길을도라 울든차에 맥이업고 숨이차서 한언덕에 안저쉬게되엿습니다 그런데얼마 안저쉬면서 건너편을 바라보니 큰나무하나가섯는데 그나무꼭대기에 나무열매가 먹음직스럽게 주렁주렁 달리워잇섯습니다 이열매를바라보는여호는 마음이 엇더케깁븐지 엇절줄을몰랏습니다 여호는얼른 그나무로쫏차가서 다시나무를처다보니 빨리먹고십지만 놉흔나무로 올러갈재조도업고 여호는 엇지할도리가 업섯습니다

마참이때에 주둥이크고 눈이 조고마한멧도야지 한마리가자긔의압흐로 뛰여왓습니다 이것을 본 여호는얼는멧도야지압흘 마조향하야 뛰여가서

「여보멧도야지님、저산꼴작이넘어가서 커다란나무가하나잇는데 그나무에 열매는 아조만흔데내재조로 따먹을수업서서 멧도야지님을 차저왓습니다 나와함께 가서 그나무열매를 따잡수시지요」이말을들은 멧도야지는 욕심이나서

「어데잇습니까、나와가려갑시다」이러케해서 여호와멧도야지는、나무열매잇는곳으로 갓습니다 여호의말을들은 멧도야지는 나무를처다보니 과연여호의말과다름업시 열매가풍성하게 주렁주렁달리워잇섯습니다 이것을본멧도야지도 그열매를 따먹을도리가업서서 여호에게 물엇습니다

「저열매를 엇지하면 따먹겟소」 물은즉 여호의대답이

「따먹을수가잇지요 멧도야지님 힘이매우세시니 저크다란몸ㅅ가저다가 이나무를한번 처서요」

이말을들은 멧도야지는 크다란 몸ㅅ동이를 가저다 그열매달린나무를 한번힘껏첫습니다 친즉열매는 뚝뚝떨어젓습니다 떨어진열매를본멧도야지는 그만 더러운 욕심이 울룩소사올라와서 여호를안어 떡떼질하고 그만자긔혼자 다먹어버렷습니다 여호는 나무열매를 가르처주고 열매는 고사하고 열매쪽지도 하나먹지못하얏습니다

가엽슨여호는 멧도야지와 헤여저서 자긔갈곳으로 발길을 돌렷습니다 여호는 또이꼴짝 저꼴짝 힘업는다리를끌고 헤매는데 눈압헤 멧십년 자란 크다란 썩은나무하나가 보엿습니다 여호는 저나무미테가서 좀쉬고 가리라고 생각하며 나무미테까지 갓드니 그썩은나무속통에는 크다란 꿀뎡어리가 잇고 그꿀뎡어리우에는 벌들이 만히 안저잇섯습니다 멧도야지는 또그열매를다먹고 애이 여호를쫏처갓다고 여호의뒤를 쫏처왓습니다 여호는 뒤를돌려보니 밉게도생긴 악가그멧도야지가 또자긔를 쫏처왓습니다 이것을본여호는 마음에 고약하지만은 거트로는 조흔낫츠로 「멧도야지님 저나무속에 먹을것이잇습니다」고하면서 생긋우섯습니다 이말을들은 멧도야지는「어데어되」하고물엇습니다 여호는가르처 드렷스면 조켓스나 일전에하신일을 생각하니 마음에 야속해서 못가르처드린다고 말하얏습니다 이말을 들은멧도지는 또욕심에 북바처서

「요전에는、엇재든간에 이번에야 그리하겟습니까」하면서 조르니까 여호는 속으로「너이번에 욕좀봐라」하고 그나무를 가르처주엇습니다

「저기보이는 썩은나무속에 벌의 꿀이잇는데 이번에는 노나먹어야 돼요」이말들은 멧도야지는

「이번에는 그래케하자」

「그럼 여보 멧도야지님 저쪽잇는 나무를 가만히 안저 직히시요 만일다른 즘생이 오면 다먹어버릴지 모르니 그리고내가 촌에가서 떡을가저올게 우리둘이 그때에 저꿀을찍어먹으면 오작맛잇겟습닛가」

이말을들은 멧도야지는 속으로 이런생각을 가젓습니다「올타네가 촌으로가면 내혼자이꿀을 다먹어버리겟다」하고 여호더러 그럼어서 다녀오라고 햇습니다

여호는촌으로 가는것처럼하고 얼리 뛰여가서 숩사이에 숨어 멧도야지의 거동을보고잇섯습니다 멧도야지는 여호가 촌으로 갈줄만알고 그만그지독한욕심에 그벌의동이를 헤치라고 하얏습니다 이때올시다 동이속에잇든장수벌들은 여게도적이왓다하고몃백명되는 나좃별이달려들고 윙윙하면서 멧도야지에게 달려들어 그지독한 꼬리의침을가지고 쏘앗습니다 멧도야지는 꿀도먹지못하고 뛰엇습니다 그수백마리 벌들은 그냥 그멧도야지를 쫏처갓습니다 이거동을 보든 여호는 숩사이로나와서 그썩은나무잇는데 까지오니 벌들은 모다 멧도야지를 쫏처가고 하나도 업섯습니다 여호는 인제는 멧도야지와 원수을 갑헛다하고 그자리에서 꿀을다먹어버렷습니다 멧도야지는 벌들에게 쫏겨서 촌으로 뛰여가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첫습니다 이것을본 사람들은 너무도 가엽서서 집에두고 길럿습니다 이멧도야지가 처음 사람촌에서 길은는도야지의 원시조엿습니다。도야지는 그때에 꿀을 먹지못하고、벌에게、쫏기운것이、펴원통해서 대대손손히지 꿀까지「꿀ㅡ꿀ㅡ」하면서울고잇습니다

얼골이붉은것은 신경의고장

자택치료는 할수업다 원인은가지가지

살ㅅ결이 남보다 유난히 붉은것은 주로 혈액의공급과 혈관운동신경의작용으로인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먼저 혈액공급은 혈액의분량에 관계가잇는 것인데 중병후의회복기 혈액병 장기생충병、치출혈(痔出血)등으로 비혈이된사람은 혈액공급이 부족되기때문에 피부가 창백해지지만 그와반대로 다혈ㅅ증(多血症)적혈구증가ㅅ증(赤血球增加症)때문에 혈액의분량이 는다든지 또는「헤모그로빈」이증가할때는 피부가붉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혈관운동신경의작용을 생각지안흔경우의 이야기고 만약 이신경의 작용이 병ㅅ적일것가트면 설령 다혈증이라고하드래도 반드시 붉어지는것은아닙니다 그럼으로 결국은 혈관운동신경의 작용에의해서 붉어지는것이라고 말할밧게업습니다

◇

혈관운동신경에는 미주신경(迷走神經)이라는 혈관을 넓히는 신경과 교감신경(交感神經)이라는 혈관을 좁히는 신경의두종류가잇서서 항상 두신경을 평형올취하고 잇는것이데 어떤원인으로 교감신경의 작용이 노파지면 혈관이 좁아짐으로 피부가창백해지고 반대로 미주신경의작용이 강해지면 혈관이넓어저서 피부가 붉어지는것입니다 이와가티 교감신경의 작용을 제하고 미주신경편으로 작용을 하게하야 피부를 붉게하는원인에 여러가지가잇스나 주로 신경쇠약 신경질선병질、결핵질、염ㅅ증(炎症)위장병、간장병、란소병、그외의내분필선병들입니다

◇

남압헤 나설때 얼골이 붉어지는것은 신경질인까닭인데「붉어지말자」하고 조심할수록 더붉어지는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신경(意識神經)이흥분되기때문에 무의식신경(無意識神經)인 교감신경과 미주신경의작용이 그평형을 깨치기때문입니다 항상얼골이나 수족이붉은것은 혈관운동신경의작용이 평형지못하기때문에 이런사람은 대개수족에 땀이흠씨나서 괴롭워합니다 그까닭은 땀의분필이 역시교감신경과 미주신경의 량편의지배를 밧는연고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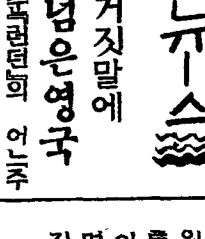
얼골에、특히코、뺨、턱、이마가튼데가 늘붉고、여드름가튼 뾰루지가나는사람이잇는데 이것은 주사좌창(酒皶座瘡)이란 피부병으로 피지선(皮脂腺)이염ㅅ증을 이르켜 혈관이 넓어저서만흔혈액이 모세관을 순환 하기때문에피부가 붉어지는것입니다。흔히 붉은코니 코빨갱이니하는별명을잇는사람이 이러한병의 환자입니다。또 내분필의 이상으로 혈관이넓어저서 되는수가잇는데 이현상이 야단스럽게되사람은 핏줄이 밝아케 · 피부면으로도 보입니다

이상과가티 피부가 붉은것에는 각기원인이 다르므로치료법도 다가틀수업습니다。바르는약、먹는약、광선료법、주사료법 그외의여러가지료법을 안배해서 교묘히치료치안흐면 안낫는것이기때문에 보통사람이 가정에서 치료할수업고 피부과전문의사의 진찰과치료를 바들바게업습니다。

問 장요근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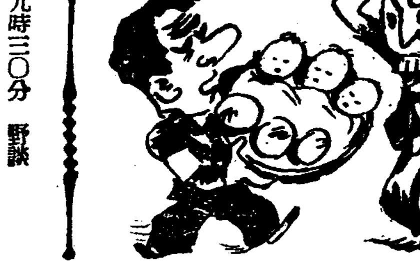
본인은이십세남자이온데 팔개월전에 각상복하(脚上腹下)와 좌편요부 척주 근방이대단이아품으로 외과전문의사에게수술을바든결과 장요근염(腸腰筋炎)으로 치료를 삼개월간을하여도 불치함에 다른의사에게재수술을 바닷사오나 조곰도 차도가업시 농즙이 창구로항상흐름으로고통중이오니 현명하신 치료방법을 가르켜주시옵소서 (平北宜川邑 一讀者)

答 장요근염통에 반년이나되야도 낫지아니하는것은 점이상합니다。혹 결핵성농양이아닌가 의심됩니다。즉 척주나 골반에 결핵성질환(結核性疾患)이잇서 그로인하야 발생한농즙이 흘너나려와 소위 한성농양(寒性膿瘍)이된것이아닌가합니다。사실 그러하다면은 근본적으로 뼈병을 치료하기전에는 한창이되지아니할것이오니 꼭진찰하야볼필요가 잇습니다 (城大小川外科 醫學博士 金成鎭)



불란서거짓말에 속아넘은영국

지난사월하순『런던』의 어느주간신문이『여섯쌍동이출생』데이온느의 세계기록 깨젓다』하는 큼직한제목으로 신문을 내돌렷기때문에 여간일에 눈끔쩍 안는 런던사람들도 여기에는 눈이 호동그래 젓섯습니다。기사내용을보면——『피레네ㅡ』산중 드리볼이란 벽촌에사는 마흔두살된 안악네압호는 여섯달전에 어린애를낫는데 한태에 여섯을 단번에나코도 모자가 다건전하다。『몬드리올』의『디온느』다섯 쌍동이의 기록을 완전히 깨친것이 판명되엇다 그런데 이사실이 아직세상에 알려지지 못한것은 드리볼이란 동리는 원악산간벽촌이라 전신전화도 롱치안코、전연 외지와는인연이 업는——이러한 기사를내면서 동시에 여섯아이의 사진까지발표햇스니 경황한것이 까로 누구나 놀수잇슬것이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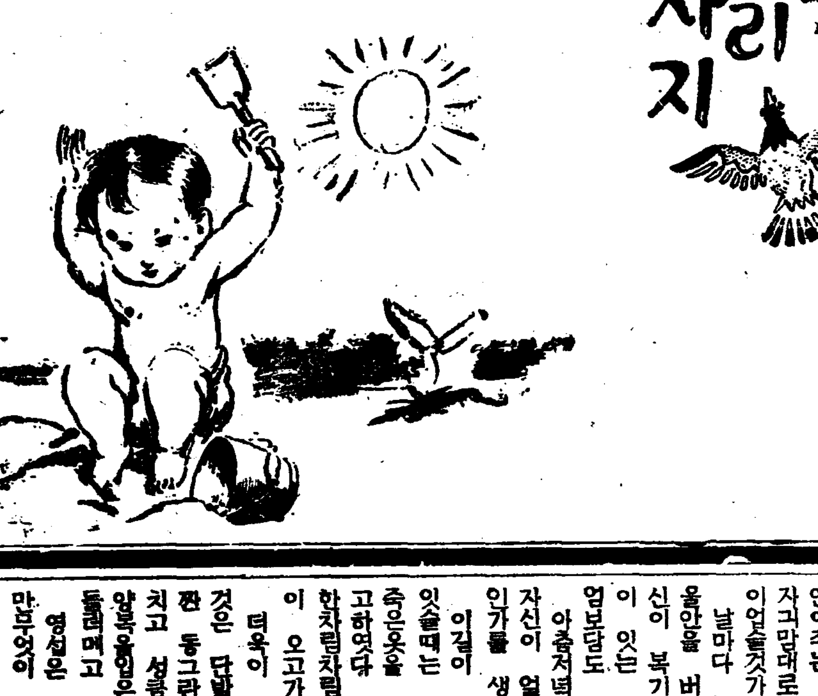


그런데 엇떤호사가가이사실을 조사해본즉 그이야기의 유래는 다음과가태스다 『파리ㅡ』에서 발해하는 엇던 주간사진회보가잇는데 그잡지에서 사월일일은『에이프릴풀』(이날은 능청스런 거짓말을해서 남을 놀래게하고 웃기고하는날)이라『에이프릴풀』특집호를 내엇다 그런데잡지에다『넷슬밀크』회사에서 광고를내는데 꾸며댄이야기로 다음의기사를냇습니다——『드리볼이란곳、어느농부의안해가여섯 쌍동이를 나엇는데 넷슬밀크를먹고 병업시 잘자란다 산모는 마지막여섯재애를 날때에는『짱·네·아재』(인재는그만)라는일홈으로해주시요햇다한다 이러한 기사와함께 한어린애를 여섯번 사진에찍어 내엇습니다。이것을 먼저말한 영국의신문은 정말로알고 거짓말을 나누가본는지 정말로알고 거짓말일줄은 몰랏든것입니다 그래서한때는 불란서사람들이 영국사람을 천치라고놀려대겟지요

우리차지

햇님은 벌거버슨 아이들을 사랑하신다。그러길래 잠뱅이하나만 입고 햇벼테서 뛰어다니는아이가더잘자라고더 튼튼하지안니。방에서 만노는 애들은 요새도 옷을겹처입고 감긔가 들려 기침만한다。

(글쓴사람 강선생)



라듸오

二十九日(金曜)

◇午後六時三〇分 라듸오世界一週修學旅行『伊太利』(一) 徽文高普 金道泰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스포츠講演『籠球이야기』 丁相允
◇同八時 紀念講演『農村振興과金融組合』 中樞院參議 韓圭復
◇同八時三〇分 愁心歌外 一、平壤愁心歌 二、엮음愁心歌 三、孔明歌 四、寒遠歌 五、山念佛 六、긴난봉가 七、자진난봉가 白牧丹 鄭順禮
◇同八時五〇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林小香 鼓手 丁元燮
◇同九時二〇分 名曲鑑賞(레코ㅡ드演奏) 첼로와 管絃樂 協奏曲B短調 作品一〇四……드보르작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樂章 아다지오·마·논·트롭포 第三樂章 알레그로·모데라ㅡ토 (解說 前鮮音樂家協會 金仁洙) 첼로 에마누엘·포이어만 伯林國立歌劇場管絃樂團 指揮 미하엘·타우베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合唱 JOAK唱歌隊
◇同六時二五分 (東)基督教講座 講演 鹽谷榮
◇同七時三〇分 講演 矢崎永三郎
◇同八時 (東)長唄
◇同八時三〇分(東) 논에서우는 개고리소리中繼
◇同八時四〇分(東) 寫生漫談 德川夢聲外

三十日(土曜)

◇午時〇分五分 (東)輕音樂 一、鐵琴獨奏 凱旋譽카…山本銑三郎作曲 二、木琴獨奏 (가)비(雨)…코ㅡ레作曲 (나)五月의百合…데이트릿히作曲 (다)가나리야…사바시루作曲 鐵琴과木琴獨奏 星出義男 피아노 藤井弘也 三、아코ㅡ듸온獨奏 아코ㅡ듸온 杉村千加士 (가)라스바니요라…치아리作曲 松原千加士編曲 (나)조고만喫茶店…레몬이드作曲 同 (다)고로라도의달…킹作曲 同 (라)따이나…양作曲 同 (마)봄의歡喜…뉴ㅡ푸ㅡ리作曲 (바)알론조 松原千加士編曲
◇同一時 野球試合實況ㅡ京城그라운드로서ㅡ"府廳對京電"
◇同六時三〇 라듸오世界一週修學旅行『伊太利』(二) 徽文高普 金道泰
◇同六時五五 兒童新聞
◇同七時 紀念講演『東鄕元帥를追慕하면서』 京城女師 沈宜麟
◇同八時 講演 滿洲國特許發明法과意匠法에對하야 李采鎬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꼿다령…(金、申) 二、설음의벌판…(申) 三、衛月의馬車…(姜) 四、東風이불면…(申、金) 五、쌍쌍화…(金) 六、문허진情炎…(申) 姜文秀 金海華 申蘭秀 伴奏 DK管絃團
◇同九時 東南風祝文外 一、東南風祝文 二、念佛打令 三、배따라기 四、梨花打令 五、달거리 崔貞植 孔蘭香
◇同九時三〇分 映畵이야기『소(牛)는눈압헤잇다』 洪蘭日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基礎佛語講座 丸山順太郞
◇午後〇時〇五分 輕音樂
◇同六時 (龍)이야기 平川淸高 星出壽男外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話 佐藤泰舜
◇同七時三〇分 (富)俚謠 新潟縣
◇同七時四〇分 (仙)俚謠 山形縣
◇同七時五五分 (東)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八時二五分 (東)人情噺 柳亭佐樂
◇同八時四五分 (東)哥澤 哥澤芝金外
◇同九時 時事解說

三十一日(日曜)

◇午後一時 野球試合實況『遞信對殖銀』『京電對府廳』
◇同六時三〇分 兒童劇『꼿팔이』一景
——【配役】——
꼿팔이…金玉順 商人…鄭海 吉順…朴容俊 福順…都熙淑 紳士…崔鎭善 少女一…安大淵 少女二…李榮玉 少女三…鄭再順 順玉…成敬煥 老人…方杜實
孔德勵勵少年會 指揮 金容德 解說 金貫國 伴奏 都貞淑 效果 金觀燮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演 神父 尹乙洙
◇同八時 歌詞 一、길軍樂 二、白鷗詞 文山紅 金錦桃 大笒 金永根
◇同八時三〇分 獨唱 一、참사랑……하우니作曲 二、드리라종달새……버ㅡ드作曲 三、그리운……크라이슬러作曲 四、夜曲……데자作曲 五、라팔로마……이라디에作曲 五、歌劇道化師中"衣裳을차려라"……레온카발로作曲 李仁範 伴奏 高俊基
◇同九時 報念外 一、報念 二、六字백이 三、개고리타령 四、興打令 卞眞紅 金柳鶯 大笒 朴鍾基
◇同九時三〇分 野談『꾀꼬리노래』 申鼎言

第一放送

◇午前九時三〇分 하ㅡ모니카獨奏와童謠 하모니카 夏田明 安田스에코外
◇同一〇時四〇分 (仙)文藝講話
◇同一一時一〇分 講演 蓮沼門三
◇午後一時三〇分 合唱 遞信音樂同好會員
◇同三時 尺八과二曲 武井一鳳外
◇同六時 (大)漫談童話劇 BK고도모서클
◇同七時三〇分 (大)바이올린獨奏 바이올린 짝、크로 伴奏 핫소、자노브로
◇同八時 (東)舞臺劇 能因法師 澤田淸子外
◇同八時五〇分 (大)浪花節 東天紅 東天晴

長篇小說 아카시아 (一)

安碩柱 作 金熊超 畵

이길을——

영섭이가 변도통을들고 맥해를 다녓든가

처음에는 울퉁불퉁한 구지레한가게들이 진을치고잇는 그좁은길이 다ㅡ헐리고 따러진새길이되엿다 그대신 좌우로 높히 석축을쌋코 그석축우에는 새로운문화주택이드러찻다 그석축가장자리로는 아카시아 나무들이 그문화주택의성곽가티 둘러싸혓다

봄에는 이아카시아나무가지사히로 분홍빗 사꾸라꼿이 보혓다 이꼿이 어느틈에 저버리고 아카시아 가지에는 새닙이 도닷다

지금은 무성한 아카시아닙사귀마다 꼿이피여 이길을 지날때면 향긔가몹시풍긴다

영섭이는 아츰저녁 이길을오고가고할때마다 이아카시아의길을지난다

지금 영섭은 이길을 거르면서 그는 코를벌룩거리며 아카시아의 향긔를 들숙마시랴 애썻다

신산한 자긔의 생애에 이자연이주는 정신영양제 이것만은 자긔맘대로 마서도 아무런불안이업슬것가탓다

날마다 몸체가 복기는것은그 올안을 버서나면 그만이지만정신이 복기는것은 그것은 정열이 잇는 젊은사람 에게는 죽엄보담도 괴로운것이엿다

아츰저녁 이길을거를때 자긔자신이 얼마나 구지레한 존재인가를 생각햇다

이길이 헐리기전에 가개들이 잇슬때는 누루끼ㅡ한 얼골 품죽은옷을 걸친무리들이 오고가고하엿다 그러나 지금은 사뭇한차림차림에 생긔잇는 무리들이 오고가고한다

더욱이 영섭의눈에 부듸치는것은 단발한 계집애들이 실로짠 동그란모자를 뒤통수에 부치고 섬약하게울린 양말다리에 양복을입은 그애들이 책가방을 둘러메고 가는것이다

영섭은 아주도젊은 사람이지만무엇이 이사람의 마음을 너무도이르게 늙게하엿는지 이것이 자긔와는 몃세긔를 떠러진 넌ㅡ시대의 일가터다 그래서그는 이길이ㅡ이아카시아의그늘이 그꼿향긔가 임이 자긔의것이아니라는것을깨다럿다 어느때 서축우에서 세파ㅡ든가튼개가지즈면 꼭자긔를보고 짓는것가테서 깜짝놀라도라보고 거름거리는 빨치안으나 마음은 좀다름질치려나는때가잇다

영섭은 이만큼 요사히 신경이날카러워젓다

그것은 너무도 그외뇌가 파로한데도잇겟지만 영섭은 자긔의 아버님이도라가고 젊지긔의 안해가죽은뒤부터 신경이 변화된까닭이다

놀 그는 이길을 거를때마다 자긔의엽흘 따라오는 자긔안해의 발소리를듯는다

또 자긔의 귀미테서 속삭이든 그안해의 가느다란 목소리도 듯는다

어느비오는날 떼도 이맘때엿다。그안해와 한우산미테서 장래에대한 화려한꿈을 섞게(設計)하며 것든 그옛일도 생각이 난다

아! 지나간 업서진 일을생각하나하고 자긔의 약한맘을 따러도보앗스나 그러나 이따에봄이오고 여름이오고 가을이잇고 겨울이잇는이상에 엇지 과거를 불사를수잇스랴 하엿다

만약 인류가 오늘까지 밧게 내일이업다면 지나간력사는 아무것도 아닐거와가티 영섭이가 사러서 이따의 흙을밟고 이푸르른하늘을 우러러볼수 잇는것이라면 엇지 사람일생에 단한번뿐이라고해도조흘 그시절의추억이업스랴

그러나 영섭은 여긔에 너무심한것이 자긔도역시 병이라하엿다

나날이 수척해가는 자긔의업풀돌때에 또는 거름을 거를면서 다리의 피가마르는듯한것을 느길때 그는무슨병인가 가피피병드려갈을 늦기엿다 자긔가아는 친구도 자긔를보고큰심해주는것을보아서 확실히 자긔는 무슨 중한병에걸린것을늑기엿다

폐ㅅ병이 아닌가

그는 이날저날하고 벼르지만도적정에 의사를못가보앗스나자긔스사로 자긔의병을 맘으로진단해보고서 그러케 처단을해보기로하엿다

폐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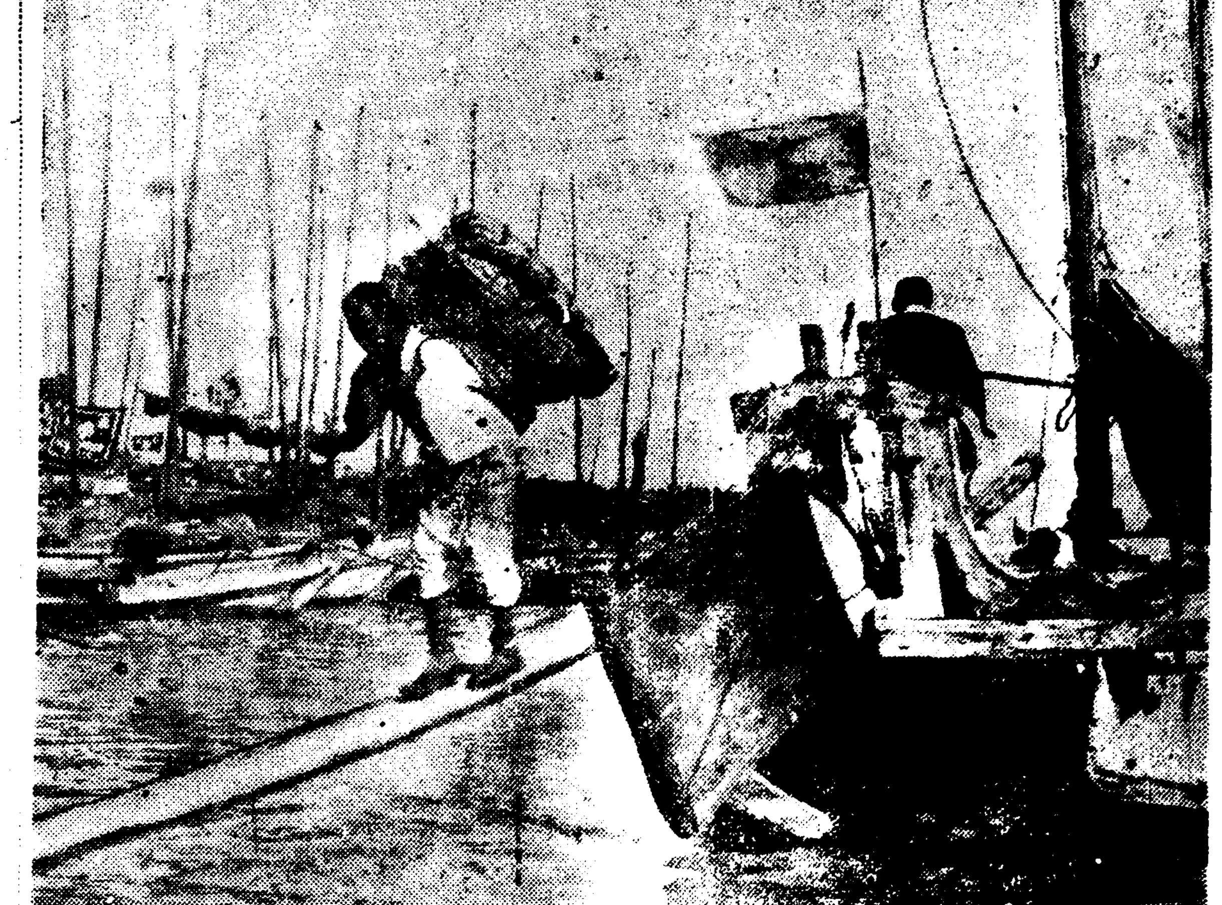
그는무서다는것보담도 애처러운생각이낫다

若草映画劇場 (電本五三二四番)
廿七日ヨリ三日間特別奉仕週間
普通三回興業映畵正午開演入場料
各等大人、學生、小人二十錢均一
大歡迎……メトロ社「孤兒ダビド物語」フオクス社「チャンドルの小公子」
……今週の番組……
▲パラマウント本年度大作日本版
巨匠セシル·B·デミル監督
十字軍
ロレッタ·ヤング、ヘンリイ·ウイルコクスン主演 アイアン·キース、カスリン·デミル助演
鐵騎八千騎、戰士三萬人!死屍山をなす驚天動地の大戰爭!壯烈悲愴!今度に見る世界歷史秀列の大歷史!
▲POL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木村莊十二監督作品
女軍突擊隊
堤眞佐子、宇留木浩、藤原釜足、森野鍛治哉共演
POL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成瀨巳喜男監督作品
噂の娘
千葉早智子、梅園龍子、大川平八郎、伊藤智子共演
全日本映畵コンクール第一位推薦作品

五月二十六日封切
每日三回〔午前十時四〇分 午後一時半 六時半〕
◆東和商事提供
佛O·F·C超特作映畵
말셀、렐비에監督作品
榮光의道
피엘리 살위롱、께레뽄니지主演
武人의忠勇과義俠과友情、다시壯烈한行動을그려본巨匠렐비에의大作
◆東和商事提供
獨逸우파超特作映畵
우리프릿츠主演
愉快한王子님
戀愛와靑樂에실니여유쾌한王子님과藥장사의따님과의꿈가튼사랑 알人戰爭、會議는춤춘다 桃源境以來의우파社力作品
◆日活超特作映畵
乾杯學生諸君
大日方傳、藤井貢、逢初夢子、市川春代 主演
全鮮第一映畵殿堂 團成社

五月二十六日부터晝夜
●·喜劇座公演第二週·●
家庭劇『콩쥐팟쥐』三幕六場
눈물흘씨로하고우슴을날로하야喜悲交錯縱橫無盡한興味를누구에게든지주는朝鮮이나은傑作콩쥐팟쥐를연극으로상연하기는이번이처음이다喜劇座總出演의熱演과아울너서반드시눈물의바다에우슴의회오리바람을이르키는壯觀을볼겸것을밋고演劇을사랑하시는여러분에게勸하는바다두번엇기어려운이機會를놋치마시고꼭보아두시라
社會劇『그림자업는악마』三幕
爆笑스켓취 世上萬事塞翁馬 一景
演劇專門을표방하야演劇의大道를開拓하고잇는東洋劇場은遍轉하는舞臺와華麗한照明과一流俳優等남이追從할수업는獨特한條件으로愛劇家諸位의拍手와喝采속에서나날이자라고잇슴을感謝하옵니다
―(次週豫告)―
崔獨鵑作
正喜劇 債鬼 三幕
西大門町 電光③ 三三二番
東洋劇場

五月二十八日부터午前十一時부터六時까지續映、七時半始映
大衆料金〔階上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階下 大人二十錢 小人十錢〕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
監督…요세푸·폰·쓰탄바
罪와罰
露西亞文豪도쓰토이에푸쓰키ㅡ不朽의名著를映畵化한것으로主演者는世界的性格俳優페ㅡ터ㅡ로ㅡ레得意作品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
監督…우이랍、네일
十三日의殺人
可憐한曲藝團에서이러난最後의決意作品
松竹키네마社超俠時代劇
市川右太衛門푸로덕슌UPあやめ池撮影所製作
監督…古野英治
明祭お染狂亂
特別作品六月六日부터二大强力番組의獅子吼!急激突然三六年度鮮燕의大剌戟超科學戰映畵의君臨!夢想에서實現되는五百年後의世界『새벽의慘劇』乞期待
仁寺町 電光一六三
朝鮮劇場



港口의微笑 ——仁川所見——

創作方法問題論議의 發展過程과 그 展望 (一)

安含光

文學上에잇서서의 새로운運動流派等은 前時代의文學에對한反動으로서 顯現되는境遇가만타。英吉利에잇서서의 로맨티시즘은 擬古主義에對한反動이엿고 十八世紀의

佛蘭西의小市民的演劇은十七世紀의 宮廷的古典悲劇에對한안티·테-제의 形態로서 顯現하엿다。

이러한 藝術史的實例는 얼마든지 枚擧할수잇는 事實로서, 時空을通하야 非但 上記의 境遇에만 局限된事實은 아닌것이니 反의原則, 그것은 文學(非但 文學의 領域에만限하는것은 아니지만) 革命의 行動的原則이어서, 恒常矛盾에 依하야 그는 前進하고 테-제에서 안티, 테-제로 發展하는 것이기때문이다。

이리하야 寫實主義는 一般的 意味에잇서서 무엇보다도 먼저, 非現實的 浪漫主義의 否定이엇고, 따라서 그의藝術的實踐은, 藝術과 實生活과의 關係를 最上級의 接近性에 잇서서 提起하기始作하엿든것이다。

이는藝術史의地位에잇서, 레아리즘만이차지할수잇는最大의功績이아닐수업다。

勿論領域의如何를莫論하고 한개의形態가 世界를强制한다거나 또는歷史를達成하는것이아니라, 그와는反對로世界가 다시말하면 그時代의政治的, 經濟的條件이그를抽出하는것이 事實인限에이서서 過去의빨조아 로맨티시즘도 그의

發生的基礎는 一定한生活的條件가운데두고이잇슬것은두말할것도업다。

그럼에도不拘하고筆者가 實生活과의接近性에잇서서, 레아리즘을 第一位에 擢置할것에 對한秩序만치의義務도 가지지안는理由는 事實 그의發展의方法과 그方法의 社會的特質에서부터 說明되여질것은 勿論이다。

여기에서 나는레아리즘이 藝術의表現을위한 單純한手法만이아니라 現實認識의態度 即作者의 世界觀과 密接히 結付되여잇다는것에關한 여러先輩들의長遠한命題를 借用할必要는느기지 안는다。

다만 一定한 階級의 上昇期的武器인 唯物論的思想을 그의 哲學的基礎로하고잇는 레아리즘은 必然으로 現實主義的精神에依하야 그自身을 武裝하고잇다는 極히常識的인命題가 그의全面的理解를 期待되게되는것이라생각한다。

따라서 새로운生活體制를위한 人間的努力의 歷史的 顯現期에 잇어서 그의 藝術的方法으로서 레아리즘이 選擇되여 왓든것이나 生活을 第一義로삼는 現今 프로文學이 레아리즘論議를 다시全幅的으로 提起하며잇다는것은事勢必要한다는바 必然的인 現象이아닐수업다。

그러나 現今에 盛行하고잇는 레아리즘의 藝術的 實踐(!)그것은「레아리즘」이라는것을

字로의單純的으로 模倣할따름으로 歷史的性格을把握하는데까지는 이르지못한듯한 感이업지안타。

이에關하야 筆者는, 今次新作壇의動向이 「레아리즘」이라는 題目으로 論說한바잇스므로, 여기에서는 그以上 더이야기하지안코저하거니와, 浪漫期以前의 最高의存在까지가, 時代的背景의 客觀的形象은, 極히 部薄한程度로밧게 示顯하지못하는反面에, 自然界와 瑣末的描寫에는 必要以上의 精力을다하야 마치 地上天國의 그根據를갓고잇든 封建主義的, 地主階의 文學을彷彿케함은 엇진緣故일까?

이와가티 現代레아리즘의 歷史的 性格을 眞實히 把握하지 못하고 그를 字義的으로 또는 主觀的으로 解釋하야 藝術的實踐을 敢行하게될때 그곳에는必然으로그것의俗된 바리에-숀이 泥出될 多分의溫床的可能性이胚胎하게되는것이다。

이는 레아리즘의 藝術的實踐을中心으로한 現今의 作壇相이如實히 證明하고잇다。

우리는勿論 지나간날에 잇서서도 一定한 樣式에잇서서의分裂된 바리에-숀의顯現을보앗다。例하자면 十八世紀末葉으로부터 十九世紀初葉까지의 英吉利의 浪漫主義에 이서서도 위-즈, 워-스로서 代表되는 民衆的으로 異端化된 로맨티시즘이라든가, 콜-릿지로 代表되는保守的 로맨티시즘이라든가 바이론으로 代表되는革命的로맨티시즘의 各其相異한色彩를보고 同上年代의 獨逸浪漫主義에이서서도 후-케、노와-리스、아이헨드롤-호等으로 代表되는貴族的인데리겐차의浪漫主義와、치-크、휘-맨等으로代表되는 平民的인데리겐차의 浪漫主義를보며 十九世紀後半의 露西亞레아리즘에잇서서도 톨스토이 오스트롭호스키- 우수펜스키- 等의各其相異한 바리에-숀을본다

存在學의槪念

—形而上學批評試論— ⑥

金基錫

普遍은 자기를 無限히 特殊化하고 特殊는 자기를 無限히 普遍化한다。그이상더 자기를特殊化할길이 업다는 이個物이란것도 그것이 眞實한個物이 되기위하야 자기를 다시 無限히 特殊化하지안허서는 안된다。그리하야 이特殊의 特殊化에 잇서서 個物은 자기자신을 일허버려야하고 자기를 일허버리는데에잇서서 한개의 새로운一般을 만들어야하고 이새로운 一般에잇서서 다시 無限한個別을 만들어 나아가지 안허서는 안된다。

眞實한個別은 그자신한개의一般이아니면 안된다。個別即一般이一般即個別이 아니면 안된다。이個的一般者의

無限 한自己限定에잇서서 存在의 世界가構成된다。우리들은헤-겔의 具體的普遍이란것이 西田敎授의 具體的一般과 어떠케 다른것인지를보앗다。하나는 有의論理, 實在의論理에서 普遍을 證明하고 하나는 無의論理,「場所」의論理에서 特殊를 解說한다。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의 個別的一般者란것을 西田敎授의具體的一般者로부터 구별해야한다。

「헤-겔」은 存在의背後에 有를 보고 西田敎授는 存在의背後에 無를본다。存在의 背後에잇는것을 생각하는데서 그들의哲學은 한가지로 依然히 觀念論이요形而上學인데 떠러진다。우리들은 存在의背後가아니라, 存在그자신의속에서 有이면서無인 그리고 有가아니면서無가아닌 어떤것을 이러는것이다。우리들은 存在의 뒤에 一般을보고 存在의업헤個別을보는것이아니고 存在그자신의속에서 個別이면서 一般인그라고

個別 이아니면서 一般이 아닌 어떤것을 읽는것이다。이못잡기어려운 웃지이는實在를 우리들은 存在의근본얼골로보고 그것을 겨오 個別的一般者라고 불러본다

存在가 個別的一般者란는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나는 지금 저편어덕우에 집지고가는사람을 본다。집지는사람은 그겨레잇는 바우나 소나무나 한가지로 한개의 存在인것이다。그리고 그것은 存在이면서도 人間이요人間이면서도 집지는사람이요 집지는 사람이면서도 저편언덕우를 지나가는 집지는사람인것이다。이집지는사람은 無인一般의 한개의 自己限定에잇서서 주어진다。그것은 存在一般의 한개의 自己限定인 人間에잇서서주어지고 다시人間一般의 한개의自己限定인 집지는사람에잇서서주어진다。

우리들은 여기서 存在一般이 人間이니 自然이니에잇서서 자기를 한개의個別로 限定하고人間一般이 집지는사람이니 생각하는사람이니에잇서서 자기를 한개의 個別로限定하고 집지는사람一般이 어제의 집지는사람이나 오늘의집지는 사람이니에잇서서 자기를 한개의個別로

限定 함을본다。모든存在는 이모양으로 자기를 부단히 個別化하면서 부단히 一般化하면서 자기를 一般的個別또는 個別的一般으로限定한다。이 한개의 個物인 집지는사람에잇서서 우리들은 人間을외오고 存在를외오고 無를외온다。이한개의 個物인 집지는 사람에잇서서 存在의世界는 그근본얼골을 우리들의아페 내여놋는것이다。

西田敎授는 이한개의個物인집지는사람가튼것을 으로 생각하는것이아닌가 無限한 一般의個別化를 거처나려온 個物이 이집지는사람가튼것에이르러 그이상더 個別化 또는一般化를遂行할수업는 한개의具體的인 基本實在라고 생각하는것이아닌가。우리들은 이一般의個別化의 한끄레석은 이個物이란것에잇서서 存在의 根本構造를 깁히 省察하지안허서는 안된다。

내가 이집지는사람을 바라보는동안에 그는 길우에 집을나려노코 땀을드린다。이제 이쉬고안저는사람은 가튼집지는사람이면서도 기실 가튼집지는사람은아니다。이한개의個物인 집지는사람은 길우에안저는 집지는사람이니 이러서서다시거러가는 집지는사람이니에잇서서

自己 를限定하지안허서는안된다。家庭을가진 집지는사람이니 家庭을가지지못한 집지는사람이니에잇서서、自己의故國을가진 집지는사람이니 自己의故國을가지지못한 집지는사람이니에잇서서 自己를限定하지안허서는안된다。이리하야 個物이 特殊의極限으로 보여지는 이個物에잇서서도 一般의個別化를 無限히 遂行하지안코는 限定 ... 無限히 個別의一般化가 遂行되고 어떤個物이 자기를 부단히 限定하는것은 어떤個物이 자기자신을 일허버리는것이되지안허서는안된다。

個物은 자기를 限定하기위하야 자기를否定한다。個物은 자기를 否定하는일에잇서서 부단히 자기를 破壞한다。그리고 個物은 자기를 破壞하는일에잇서서 부단히 자기를 創設한다。

存在는 時間과場所에잇서서 주어진다。存在는 부단히 自己를 限定하면서 時間과場所에잇서서 그리고 부단한 自己限定에잇서서 주어지는 個別的一般者가아니면안된다 사람들은 가장普遍的인것과 가장特殊的인것을 생각할수잇다고 말한다。그것은 存在그자신이 一般의 無限한個別化、個別의無限한一般化에잇서서 주어지기때문인지도모른다。

存在는 人間의

思惟 에依하야 그의뜻까지思惟되지아니할수업는어떤 것이다。存在는 人間의 思惟에대한 한개의 크다란 非合理者가아니면안된다。그러나 存在를 思惟에대한 非合理者로 보는그대로가 어느 程度까지의 存在에 대한 理解가 아닐가。人間의 思惟가 存在에서 出發해야하면서도 存在그자신이 人間의 思惟를 넘어선다는것은 생각하는무리인 우리들에게 한개의 무거운失望을 가져온다 그러나 思惟를넘어서는存在를 思惟한다는 無限한課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새로운法悅에차저 이러서지안허서는안된다。(完)

漢詩募集

題、綠陰

押=覺

◇限五月末日

(薄謝進呈)

文藝時感 小說안쓰는辯明

● 蔡萬植

◇

野談文學은 그저 한입으로하면 民衆이 조와하는데 그發生과成長의 根據가잇고 民衆은 그 마즌 文學的 作品보다는 野談文學을 더재미잇서하고 그러니까 쩌-날리즘은 그成長을 積極的으로 조장하는 形勢로 보게되는것이오

그것은 日本文壇의 論議이나 그보다 조곰만 더 文學的모습을 띄운 大衆小說이 크게 繁盛한것을보면 알수가잇소

君은 강렬한 색채의 流行歌에 이마를찌프렷지오? 그러나 그것은 君뿐이요·普通의 형편한 친구나 시정사람이나 中學生들은 그 流行歌가 퍽 조흔것이오

이러한 流行歌와 野談小說이 엇시는 民衆은 퍽 심심하오 그러한것을 듯고읽고하면 그들은 퍽 질겁고 재미가잇소 그러니까 流行歌의 레코-드는 잘팔리고 野談雜誌의 販路는 小說이 한참을바드오 이러한것을 명어노코 無數히서야 되겟소?

그러나 그래라고 나는 野談文學이나 流行歌를 울호면역하는것은 아니오 다만中間을 略하고 結論으로 「民衆이 그러한 野談文學과는 後元로 이런으로 오도록 조흔小說을 쓰라」고 할 따름이오

또 所謂 本格小說을 쓰는사람들이 그것을 바라고 보다 野談文學으로 도라-오한다고 君은 보게하지만 그것을 본게하는 君의 良心이 가여우나매우 우습소

무릇 所謂 本格小說이라고하는 旣成社會의 文學의 길이란 두가지밧게업스니 하나는 新心理主義에로 나가는것과 하나는 史實에서 材料를 어더 놋기고 그것이오

勿論 두가지가 다 文學의正道는 아니나 그러한 한개의大道라는데에서는 한 文學靑年의 方이나 한편이나 홍분이나 저주로는 막어보지 안는일이오

이제 두고보오마는 君따러보아란듯이 野談文學은 압흘로한동안은 더 잘 繁盛할러이니——

◇

이렇게 길어져서 編輯者가실혀하겟스니 이만큼 하여두고끈켓소

서울도 시방 첫여름이 한창 무르녹아가오 가끔 下宿을 나가서 宗廟뒤등으로난 새길을걸어나려면——나는 이길을 것기를 퍽 조하하오——하루하루도古宮안의 나무닙의 푸른빗치 무겁게 지터가오 그럴수록 古宮의 남은所者은 더욱낡어보이오

그러한것을 보면서 그길을걸어나리면 歷史를 밟아며 밟고 지나는것가타서 퍽 感傷하고沈鬱해지오

君도 어서바삐 그솜씨가 놀어 力作의 선물을 가지고 文壇에데뷰-하기를 빌며이만——

科學常識 宇宙間物體와 四大元素란것

옛날사람들은 天地宇宙가 四大元素로부터 되엿다고 생각하엿다。이생각은 東洋과 西洋을 不問하고 相當히 오랜동안을 미더 오게된것이다。即 四大元素라는것은 地 水 風 火인데 지금생각해보면 이것은 宇宙間에잇는 物體의 形相을 생각한것갓다。地라고하는것은 흙이니 固體를 代表하는것이고 水라는것은 液體의 代表이고 風이라는것은 氣體의 代表이다 最後의 火라는것은 物體는아니다。物體의 形相이 變化하거나 物體 그自身이 變化할때 이러나는現象을 代表한것이다。이것은 오늘날에네르기-라고하는것이다。

天地宇宙를 만드는 根本의物體는 무엇이냐고하면 그것은 化學上으로 말하는 九十餘의 元素에 지나지안는것이다 그러나 옛날사람들은 物體와 物體가 가지는 形相과를 混同해서 固體이면 무엇이든지土이고 液體이면 무엇이든지 水이고 氣體이면 무엇이든지 空氣라고 생각한것이다。

人間도 結局은 흙으로 도라간다거나, 물질가 흘러서 살어나온다거나하는것은 不知不識間에 옛날사람들의 생각과 가튼것을 지금사람도 생각하고잇는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생각은 그런것이아니다。物體에는 그物體特有의 原子라거나 分子라거나하는 뭇는것이다 그래서 그分子나 原子의 配列하는 方法如何에따라서 固體도되고 液體도되고 또는 氣體도되는것이다。그一例를 어느 有機化合物에 對해서 圖示할수도잇는것이다。

固體中에는 分子는 서로 非常히떼여져잇스나 液體中에서는서로 接近하고잇다。그러나 그分子는 조곰식운동을 일삼아고잇다。

그러나 固體가되면 確實히一定한位置에 固定해잇는것가티보인다。

一古書解說一(二) 朱子增損呂氏鄕約

方鍾鉉

다음으로 그러면 그後에는 번이나 다시刊行되엇는가 이에關하야는 그當時에도 各書에서 刊行되던事實이 잇슴은 알수잇스나 그後今日까지 四百年동안에 달리刊行하엿다는 記錄을 뵈여주는데가 別로업는것이 그當時 相當한 注目을 끌은것과는 反對되는事實이라고 생각되리만하다。그러나 여기에 더한번 그 由來를 討究하지안흘수업는 事實이잇스니 그것은 李禹昇(梨花專門學校)氏所藏本 (다른이가 가젓다는것도 드물것이다) 그表紙의 裏面에 아래와가튼 文句가 잇스니 即 萬曆二年二月日에 內賜奉常寺主簿朱德元呂氏鄕約一件 命除謝恩이라고 하고 그끄테 左承旨臣鄭이라고 하여잇는 宣賜之印이 分明한 內賜本으로 되여잇습니다 몬저 萬曆二年이라고하면 宣祖七年(西紀一五七四)이니 前에 金安國이 諺解한 年代로 부터 바루 五十六年後가 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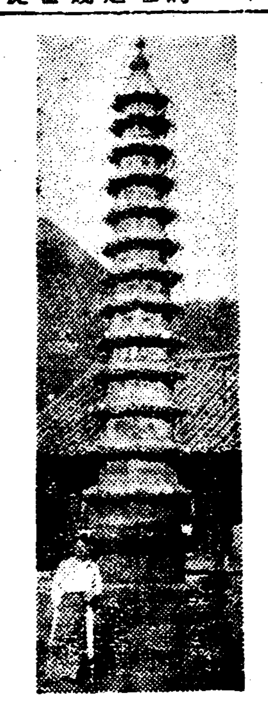
그러므로 이책 即宣賜本이 어느때의 것이냐고 문제되는것이 혼히 內賜本은 刊行即時로 內賜한것이 만하서 이記錄이 그 年代를 推測케하는 資料가 되는것이 만타 勿論 이것도 萬曆二年二月以前임은 分明히 證하는것으로서 冊의 價値를더욱 놉히는것이로 書誌로서는 그러면 이책이 萬曆二年에 다시 再版되엇느냐 또 朱德元이란사람에게 內賜된 由來가 分明하나하는것이 다음으로 닥치는問題다。그러나 여기에서 推測할수 잇는事實은 朱子가 增損한 冊이만흘 朝鮮에서 刊行되는때에 그姓을가리한 朱氏 即朱德元이란 사람에게 內賜되엇스리라고 생각되는바이며 이朱德元은 그리有名한 人物은 아니므로 달리 알리어지지안햇고 다만 綾城朱氏로서 良佐의 子요 文科하엿고 郡守이엇든것을 알수잇슬뿐이다。다음으로 그러한 萬曆二年은呂氏以後에關하야多少間이라도關心을 가젓든時代나 어떠냐하는것이 문제이다。그리하야 이內賜年月日即萬曆二年을 中心한그當時를 살펴보면 眉岩集에서우리는 아래와가튼 事實을 차저볼수잇다

承審示諭大是大是鄕約事 朱子答張南軒 呂東萊皆以爲難則其通行一國之不易亦可知突然不可以此爲古道駭俗此甚未安當以此意上箚而語有時勢又以遇災修省之意愈懇爲之事以相居未能運參云云

이것은 壬申에 眉岩이 柳成龍에게 보낸答書이니 바루 이壬申年은 萬曆二年으로부터 三年前인 宣祖五年임으로 그當時 이鄕約에 關하야 論議가 잇는것을 짐작할수잇는것이다。그뿐만이아니라 이에關한 記錄은 여러文獻에서 쉽게 차저볼수잇스니 다시 眉岩集을 보면

……臣等伏見朱子增損藍田呂氏鄕約最爲治之良籍也 救人心回世道之要莫大於此而頃者言官論啓寬服於音物情之疑惑久而愈極也其時 上教旣以爲迂闊指紳之間亦有妨碍難行之議或以爲宜古不宜於今日臣等未知何者爲妨碍何者爲不宜於今乎人君以大有爲之志奮然行之則雖三代之制亦無難行之患況在鄕約乃大賢斟酌增損爲萬世通行之規宜於人情合於天理非高遠駭俗之事乎以此爲迂闊而不擧則數驅之人倫悖戾之風俗無時而可變矣豈不於倡京師四方之本王化之所出今若命先行之則不變之效庶幾可見請加深思斷命擧行

이것은 癸酉六月의 일이니 即 萬曆元年(西紀一五七三)이므로 內賜年月의 바루 前年에當하는 것이다



妙香山遊記 (五)

—地下金剛棟龍窟—

金武吉

地下의神秘인 棟龍窟을 보고가려고 나는球場驛에서 나리엇다 그리고 自動車로 約十里를가면 山勢가 秀麗하고 溪流맑은 山路에서 나리게되다。그리고는窟內를 探査하기爲하야 二百燭光의 瓦斯燈을 準備하고 雨衣를 더입은後에 龍門山을向해 처바

山名이 龍門山인것과 窟名이 棟龍窟인것으로 미루어보면 古人의 智識으로는 龍이나온구멍으로하게 聯想함즉한것가 언든하다。

그러나 이鍾乳窟은 米國이자랑하는「마모스」洞窟보다도 伊太利가 宣傳하는「포리트로미야」洞窟보이나 山口縣에잇는 秋芳洞窟보다도 世界에서 가장大規模요神妙한것이니 아직도 그終端이어데가서 머저서는지? 不可測이며 只今들수잇는것은 極히少部分일는지도 알수업다 웨그러나하면 妙香山의 어느곳이나다 共通된 石質이잇기때문에 或은 平北을 다차지한 妙香山의 밋바다이 全部 洞窟이 안일는지 保障키어렵다。

大體이러한洞窟이 생기는過程을 現代人의智識으로 理會한다면 地球가 漸次冷却해감사록 內部에서 壓迫이드러게스가 어떤地點을틈코 徐徐히나온 使節일지니 그偉大한 自然의힘으로 되는일로본다면 그다지큰規模의것도 아니라고하겟다。

이暗黑窟을 探査하기始作한것은 照明裝置가 設置한 近年의일이며 前代人은 窟口이나 邊淺境界에 드려서는形跡이잇 窟의內部는 高와 廣과 闊이一定치못하여 或은 이마를 부딧조울만큼 여러서 伏하고갈것도 잇고或은狹道로 겨우지나고 或은通路가 羊腸가티 고불거리고 或은練兵場가티 넓기도하고 或은하날이나 처다보는것가티 놉흔곳도잇서 四百燭光의 瓦斯燈도 火光이미치지못함을본다。그나 뿐아니라 大沼가 潤間히잇고或은高山을 올라가듯이 한참동안 올라가고 或은天空업시 나려만가기도한다。그리고 處處에 奇奇妙妙한 形象을가진 鍾乳石이 우둑우둑서잇서 마치金剛山을간것보다도 한層더 아름답다。

처음에드러가는 洞口가 約三十米突의 斷崖로되여 드러가면서도 무시무시한感이다。아주나려서면 洗心洞이라는 廣場에 이른다。이洗心洞에는距今千二百六十年前 高句麗嬰陽王時에 新羅軍의 急追를避하야人이들엇다는 記錄이잇고 또그後에도 자주 沙門을 드렷든 遺跡이잇다。

그곳을 너머서면 仙莊窟를 비롯하야 練兵場이나 武士塔이니 蝙蝠洞 駱駝岩 寂照塔 龍瀧碧 天洞 金剛洞等等 約十里에 빠처 連續하는 千態萬象의 奇岩怪蟹이 名實相副하게 展列되엿다。

그리고 아직도山水가 새여나려 石灰質을 溶解시킴이 鍾乳石을成長시키는工作을 繼續하는것도잇고 或은그工作을 中止한것도잇다。

저것가티 맑고 아름다운 鍾乳石이 無數히 느러진것은 實로一大佳觀이거니와 이러케 向下하여 成長力을가진 所謂石乳는一寸大가되기에 二百年이란 엄청나게긴歲月을 要하게되고 그反對로 石筍이 下底에서 우로向해 成長하는 所謂石筍은 一寸大가되기에 勿驚!三百年을 虛費한다고한다。

鑛而이窟內에는 數十尺의天井에서 石乳가 커나려와 下底에다은것도잇고 或은石筍이 자라나서 數十尺高의 天井을찌르는것도잇스나 이所謂石柱가 그만큼成長하기에 所要되는時年은 實로幾萬年에 及할것이다。

이들鍾乳石은 或은佛像과갓고 或은獅子갓기도하며 或은 火光이 透明되도록 精粹한것도잇고 或은때리면 美妙한音響을 내는것도잇스며 或은水田을 模型하노흔것가튼곳도잇고 或은床玉을 뿌려노흔곳도잇스니 모다우리의 想像을깨치는 奇怪形態이다。그러으로 이鍾乳洞은 말과 文章이나 그림 寫眞等으로 그眞面目을 傳할수업고 다만親히 肉眼으로보고 嘆歎할者이다。

窟의 支窟에드러가면 다시또 支窟이잇고 또支窟에드러가면 다른 分窟이생겨 無限히깊고 無限히 퍼진것이 더異昧잇다。

約한時間이나 나리고 오르고 굴히고 돌다가 出口의좁은구멍으로 光明이 쏘아드러올때 나는아지못하는새 歡聲을喝렷다。그리고 그光明을 아스러고 다름질쳣다。——完——

「픽크윅」百年祭 十八世紀의 英國文豪 딕켄스의 名作「픽크윅·페-퍼-스」를 記念하는 百年祭가 最近 英國의 「픽크윅倶樂部」會員들에게依해서 開催되바 會員들은 「딕켄스」時代의 裝束으로「로체스타-」에 到着한一行을爲하야 祝杯를드는市長 (寫眞은 「로체스타-」에 馬車를 모랏나。)

海外短信

今年度米國「프릿쓰아」賞

[뉴-욕聯同盟通信] 今年度의米國의「노-벨」——「퓰릿쓰아」賞은五月初旬「콜럼비아」大學「프릿쓰아」賞金委員會의 恒例晩餐會에서 發表되엿는데 受賞者,受賞作品은 左와갓다

◆新聞關係

一、「월프렛드·바-바-」民(「시카고·트리뷴」紙「아디스아베바」特派員) 米國新聞記者로서 「아디스아베바」에 第一先着한 사람으로가던「마라리아」病으로 死亡。優秀外國通信員賞 五〇〇弗

二、「로-렌·라이만」氏(「뉴-욕·타임스」紙)「린드바-그」大佐一家의 英國亡命을 四日以前에探知、大佐一家가 安全히出航하기까지 秘密을 직히고도 오히려 되구다베이엿다。今年度最優秀探訪記事賞 一〇〇〇弗

三、「시-다·래-픽·가젯트」紙(「아이오와」州「시-다·시티-」)의 市政腐敗事 摘發嚴正한功績。公共功獻賞牌

◆文學關係

一、小說『角笛中의樂聲』「하롤드·듸-빅스」氏著 一〇〇〇弗

二、韻文 『스트렌디·홈리 베스』誌에 發表한 諸作品「로바-트·코핀」氏 一〇〇〇弗

三、歷史『亞米利加合衆國憲政史』「안드류-·마리라프린」氏著 一〇〇〇弗、

四、傳記『윌리양·제스의思想과 性格』「라르프배리-」氏著 一〇〇〇弗

五、劇『愚者의기쁨』「에엇트·솨-윗-드」氏著 一〇〇〇弗

五月의記錄 (三)

許俊

처음에는 表現할것이 너무 만흔것가태서 文學을 始作한다。그다음에는 그것이 그대로는살지 안는것임을 알려서 苦悶한다。그리고 지금에는 그사는것이란것을 疑心해서 못 씁다。이러케해서 그는 한篇 한篇式 詩를 일허버리는것이다。이러버리면서 씨피는 쓰쓸하고도 단 孤獨의 악락사람!

그 쓴맛이 실타고 외 배아더 버릴가! 그러면 또 단맛만을 빨다가는 외 울고시픈것일가! 이러케 생각난것이 海宇라는사람의 存在的宿命이라는 것이다。

意慾해서 한 일은 한란할것도업다。意慾업시 되어진은 한란할수도업다。다 運命에대한 기쁜 意慾이다。

그러면 海宇는 왜自己가 罪人이엿슬것이 괴롭지아니하고 허물 되엿을가? 罪惡은마음에 高慢을 가질수가 잇는까닭에 괴롭지안코 허물은 高慢할것도 업는까닭에 괴롭은것일가?

며출을 두고 에쓰고 명일을 두고 解決한것이 하로아츰 문득 변소에서나 저녁 氷茶가튼데서 깨저지는수가 만흔것은 웬일일가。변소나 목욕통이 다 하로의 몸때를 벗는곳이되여서 그러할가? 그러치도안코보면 일(問題)이라고하는것은 當然히解決되도록 되여진것인까닭일가?

가령 사람이 기픈 우물가튼데 떨어질때는 各各 제 一生 三十이면 三十평생 六十이면六十의평생을 刹那的으로 다 回憶한다는데 그러타면 사람은 어느날에가서는 一生에解決못한問題를 解決하지안코는 못 배기는듯도하다。적어도 解決해다고 생각하는것만이라도 잇서야 하는것이 아닐가?

얼마든지 끌어내려가기도하고 하로저녁 偶然히 꼿매즐수도잇는 이러한 問題! 그러므로 神은 存在해서 人生을 다스리는것이아니라 人生의부름에 應하야 오는者가 아닐가? 진호斷念하고 妻子를斷念하고 名譽와 財産을斷念하고 그리고는 自己의 生命까지도 斷念하는海宇와 가튼 重病患者의부름에——

告白이란文字 懺悔라는文字가 엇슬때에 어느누가 먼저 告白과 懺悔를 하엿슬가——告白이란말이 얼마나만혼 告白 참회란말이 얼마나만흔 참회를 끝어왓슬가?

주정뱅이도 그러한 懺悔者요 世上의 鐵面皮라고하는者도 이 내친거름을것는 懺悔者에지나지 안는것이다。우리는 오가스타누스의 참회를안다고한다。그러나 그後의 懺悔를 우리는 알지못하고 잇는것이 아닌가?

이것으로보면 海宇는 懺悔하는사람이오 한後에 또 懺悔할것을 하는사람이다。그는 한번하고는 그날그날 그때그때의집을 버서버리는 주정뱅이도 되고십지안코 한평생 내친참회를 하는 人生의鐵面皮도 되고십지안흔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그는 分明의 天才인까닭에—— (完)

新刊紹介

◆朝光 六月號(主要目次) 車中에서매즌 로-맨스(一題競作) 金晉燮外諸氏 時事論文=統制經濟의 新方向…徐廷外諸氏 無情 소트때와 其後…李春羅 尙의 教育朝鮮의 現況…李甲燮 朝鮮文學에나타난僧侶生活을敘함…權相老 漢文漢詩、隨筆、野談特輯作品其他 發行所 京城府太平通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六七八 送料二錢

◆湖南評論 五月號 發行所 京城府崇四町二〇六 湖南評論社 京城總文社定價二十錢送料二錢

◆中央 六月號(主要目次) 孔米會議와明日의太平洋…朴讚俊、히틀러의若問…安炳珠 에티오피아帝國…李友狄 基督敎와社會事業…張亨植 나의回憶 第四回西伯利亞를거처서…呂運亨 航空界新路打通 野談 創作等其他 發行所 京城府堅志町一一 朝鮮中央日報社 振替京城五五七八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讀者社交室

▲京城府內나 或은近郊에게신분으로서『탐사크』(中型大型共可)를 臨時貸付하야주실분이 게시면 左記住所로 通知하야주시압소서 謝禮金其他詳細한事項은 面談하고 相議하겟습니다 京城府孝悌町一九八 白世烈

▲正確한 百中曆을 求코저하와四五次 書店에서 注文하여보와도 全部틀리오니 正確한百中曆을 販賣하는데를 下敎하여주시요 義州 一讀者

▲今年二十歲에 男子로서 京城公立職業學校商業科를마추고 商店實務、會社簿記의經驗잇습니다 商店會社等의 使用해주시기를願합니다 左記住所로一報하야주십시요 (京城府積善町一五八)

▲大正二年陰五月十日이 陽曆으로何月何日이온지下敎하시는분에게感謝謝禮하겟사오며厚意를表하려합니다! 金靜波

▲求職 저는 今年十九歲인대普校卒業이온데 將來의 綿布商及書籍店에 뜻을두고잇사오니 京城府內의 大書籍店及 綿布商店에就職하고저하니 採用하여주십을바랍니다 北靑 欲知生

▲저는朝鮮內開業醫生이온데滿洲方面에가서 開業할意向이잇사오며 朝鮮醫生으로서 滿洲國內에 如何히醫師開業할수잇는지? 或은朝鮮內와 如히醫師醫生의試驗制度가잇는지요 若試驗制度가잇다면 試驗規定을詳細히알려주시면어떤方法으로알수잇습가요 讀者中滿洲國開業醫나 滿洲事情잘아시는분은 社交室로通하야잘가르처주십을바랍니다 慶南B、T、G、生

▲咸北明川郡의 金貞鎬氏의住所를아시는분이 게시거든 下敎하여주서요、高城邑 朝鮮日報支局記者에게 못습니다 高城郡內에서 酒業하는 李貞淑 金順子의 住所는 烽燧里이아니며 大津의 잇슬곳한데 確實이 몰으는故로 下敎하여주옵소서 朝鮮文壇住所를 下敎하여주옵소서 江原道 一讀者

▲陰曆過去年月日을 陽曆年代로換算하는 方法과 明治四十年陰曆八月二十四日은 陽曆으로몃칠이되는지요 어느해 어느달에 該當한나가(咸北慶興局對岸金鐵一讀者)

▲市內鍾路一丁目 韓靑빌딩內『女子美粧院』院長께 뭇잡니다

一、女子로서 顔面에 面刀하여도 後에염이쯤지나거나 또는 英顔도 面刀를하나마찬가지옵는지요?生은 顔面과 목에만 合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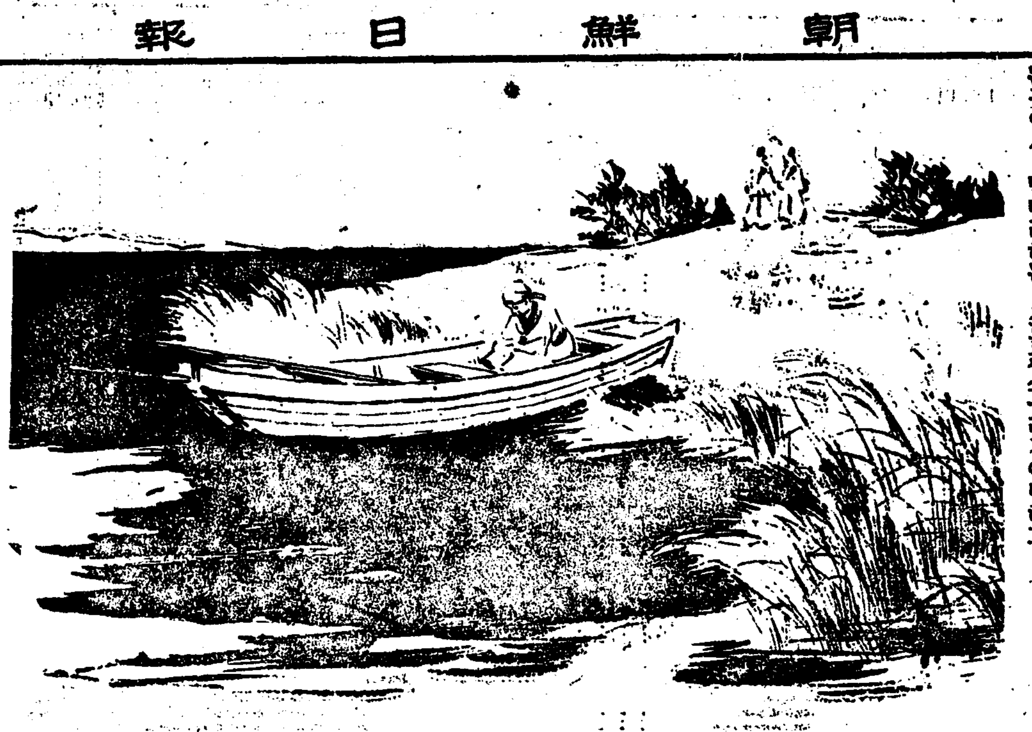
二、生은 얼골에는附近이검은 긔가잇는데 엇더케化粧하야은면조흔지요? 그리고 얼골이몹근리가만읍니다 이點도 未安하오나 下敎하여주시압 (市內一女性)

▲五月八日社交室에 平北熙川郡東下面法興洞 腸蹊山人에게告함。小生이 金東仁作「감자」를가젓스니 交換하실意向이 게시면 左記住所로 問議하시요 黃海道鳳山郡…… 金在銀

▲… 卒業後綿布商店에勤務하야 商業에對한 經驗으로잇습니다 此記住所로 店員待遇에對하야 詳細한片紙하야주십을 바라오면 곳上京하겟습니다 鎭海邑慶和洞四六一 金鳳吉

連載野談 布衾記 (廿六)

申鼎言 作
金熊超 畵



머슴살든임걱(十四)

조불과 소우 두관원이 창조리의 큰 부탁을 받고 그발으로 길을 떠낫다。

그 길을 떠난 뜻은 분명히 엇거니와 그 뜻을 일울곳은 아지못할 지향없는 길이엿다。

산을 넘어야 그 곳일는지? 물을 건너야 그곳일는지?

또한 차지려는 사람은 분명히 젊은 사나히지만은 이목구비가 어떠케 생겻는지。몸통이는 뚱뚱한지、갸알핀지。키는 큰지、작은지。입은것은 중옷을입엇는지、군사옷을 입엇는지、거지옷을 입엇는지、농군옷을 입엇는지。

모든것을 알수없는 사람이엇다。

이 알수없는 사람을 약속없는곳에서 만나려하는 조불과소우의 얼굴은 매우답답하얏다。

그들은 다만 앞일만이 답답한것뿐 아니라 벌서 서울을떠난지가 한달。그 한달동안일이 또한 궁금하얏다。

『왕께서는 그동안 죄없는 어진 신하를 또 죽이시지나아니하섯는지。창조리는 둘도업는 충신이엇만은 어느 간악한자의 시괴로 어떤 큰 해나 당치아니하얏는지。주린배를 움켜쥐고 대궐역사를하는 백성들중에는 용당 죽은 사람이잇것지만은 만히나 죽지아니하얏는지。또한 무시、무시한 천변지재。징글、징글한 괴변은 그 동안 얼마나잇섯는지。』

그 무엇이나 궁금증이 생기지 아니하는일이 없엇다。

조불과 소우는 이러한 답답한 생각과 궁금한 생각을 가슴에 품고 걸고 것는거름이아지못하는중에 비류강 언덕까지 니르럿다。

이때 을불은 조불과 소우가 군사맷사람을 데불고 강을 향하야 오는것을 보자 또한크게 놀내여 곳 몸을 피하랴 하얏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처저서 배를 타고 물우로 도망할수도 없고 배를 버리고 산골로 도망할수도 없엇다。

그래서 우선 급한 방편으로써 얼굴을 강건너편을 향하고 돌아서서 얼굴이나 보이지 아니하라하얏다。

을불은 돌아서서 허리를 굽흐리고 일울하는체 하지만은、실상은 일이 손에 잡히지를아니하얏다。그리고

『감수한일!。감수한일!。이런뜻 항상 마음을 조이지말고 찾아리 저 강물에나 빠져죽는것이 낫지아니할가。저 군사가 와서 목덜미를 잡기전에。』

하면서 곳 그군사가 목덜미를 잡는듯한 생각이 급해 질사록 강물에 빠지고십흔 생각도 역시 간절하얏다。

그런데 조불과 소우는 강언덕에 나른지가 벌서 한참이나 되엿스나 아속 별반거조를 차리지아니하고

『청산은 병풍이되고 록수는거울이되듯。쌍쌍이 날러드는갈매기떼。저녁 해빛을 담북실코돌아가는돗대。하하。우리는 이강산의 호걸인듯하이。』

하고 짓거리는 소리만 을불의 귀천을 각금、각금 시처 지내갓다。

조불과 소우는 그동안 산도 넘은배 여러번이오 물도 건넌배 여러번이엿다。

그러나 비류강산의 풍경만큼 아름다운것을 보지못하다가 그 풍경을 처음보매 맛치 풍진세상의 깨끗지못한 심장을 그푸른 물결에 씻고 그 맑은 바람에 말이는듯。상쾌한 늣김이 떠돌앗다。

그래서 조불과 소우는 손을 마주잡고 강언덕을 우아래로거닐다가 어찌다 을불을 바로보고서는 거름을 멈추엇다。

『어-ㅇ、저 사람이 배사람노릇은 하나 외회에 나타나 보이는것이 유달니 보이는데 하면서 조불과 소우는 더욱 을불을 유심히 보려고하다。

을불은 그눈치를 채이고혼연한 태도로써 여전히 일울하는척하나 은근히 다시얼굴을 보이지아니하려고 하지만은 첫재 가슴이 울렁거리며 암만해도행색이 남의눈에 수상히 보힐것을 스스로 깨닫엇다。

조불과 소우는 을불에 대한의심이 점점 커가다가

『자! 이때게 아니야 갓가히 가서 본색을 좀 탐지해봐。

하고 을불이 타고잇는 배에를 어섯다。

그리고 을불에게대하야 일부의 손자대접을하는 례로써 인사한뒤에

『왕손 을불 공자가 아니시온닛까?。』

하고 대번에 쏘아 물엇다。

『아니올시다!。관원께서 보지는바와가티 뱃놈이올시다。』

하고 을불은 시치미를 떼고대답하얏다。

『아니、속이심이 아니오니』

하면서 조불과 소우는 을불의 기색이 수상한것을 눈치 채고 곳 을불을 잇끌고 서울을 향하야 떠낫다。

映畵와 音樂 (6)

金管

(우에예든 그錄音의 操作은에푸터·레코-딩으로서되는것이다)

다음으로한가지는 畵面이 엇더한情景을보이는것으로 槪念的이고 樣式的인경우 다시말하면 象徵的인때로말하면現實音으로서는適當치안흔때에씨우는伴奏音樂 - 例를들면 畵面이時間的經過를 한『커트』식 數個의情景으로서表現할때、가령나의『다이나』가운데서 女主人公(존·크로포-드)이 結婚을하고 競馬場으로、汽船旅行으로、오페라로……等……의簡單한 情景으로 뵈일때 音樂은 畵面의『오버라프』에 맛처서 槪念的으로 表示하고잇다 다른한例를들면 『사랑의하로밤』에서도 女主人公(그레스·무-어)이 미라노에서 修業을 마치우고 當分間은 地方巡廻에서 노래를 불리운다고 先生은 말한다 그리고 汽車는 따불하고 地方地方의風景이 따불고 오페라의樂譜가 따불고한다 거기 오페라의 여러가지曲이 한季한쪽식 伴奏된다 그것은 主人公이 伊太利各地方에서 오페라를 불으는것을 槪念的으로 말하는(表示)것에 틀림업다

그러나 여기서들 伴奏되는音樂이 抽象的說明에 지나지아니하니까 긴거트를 게속할수는업다

우리가 漫畵에서 흔히 보는것이지만 미키、마우스의 거룸거리나 하품에까지 徹底히 音樂化되여잇다 이것은 別問題로하고서라도 크롬웰의『痴人의사랑』의男主人公이 절름바리(不具)者學生으로 레스토란트 女給에게 背反을 當하고 거리를 헤매는때、그발(足)의 액순을 音樂化해서노왓슬때 그것이 그저발이 땅에부다치는데서 나는現實音보다도 그主人公의 心理를 깁히 그려내는 情緖를 가지고 잇다 『人生案內』의 래스트·신에서 보는汽笛과 『몬불란의王者』의 몬불란 에올라간主人公의 心理를 象徵을 表示하는 壯嚴한 音樂으로서 情緖를보이는것——等은 畵面가운데나타나는 現實音을 音樂化한것이다、勿論 그音樂化된것은 畵面과 有機的으로 結連되여잇는것이다。

이밖게 오페레타、레뷰映畵等에서보는、세레푸가어느듯 노래(歌)로變하고 樂隊가伴奏되고하는것들보다 말하자면 聲樂으로서 心理描寫나 或은 心理說明을 하는것의 도하手法이다

×

順序가 바뀌엿지만은 여기서 토-키音樂의 發生과 그發展過程을 揷入하기로한다。

토-키以前의 映畵는 勿論伴奏音樂의 힘을빌고잇섯다 當時亞米利加에 잇서서는 撮影現場에서 適當한音樂을 演奏해서그『진』의 雰圍氣(氣分)을 내게해서 俳優들이 演技를 助長하엿다、더욱 映畵館에서는 그映畵의 伴奏音樂을 特別히硏究한적도잇섯다 無聲時代 東京等地나 서울과가티 說明者가업는 外國으로말하면 當然히 이音樂伴奏라는 形式이 그畵面畵面을 說明하는役割을가지고잇섯다 但 토-키-가 完成되려고하는 直前、다시말하면 토-키-黎明期에 잇서서 映畵와 音樂의 有機的結合이 얼마간잇섯다 即 엇더한映畵作品에對해서 엇더한作曲家로해서 特別히 그映畵의內容을暗示하고 따라 時間的問題을 考慮에느어서 맨들러진 音樂이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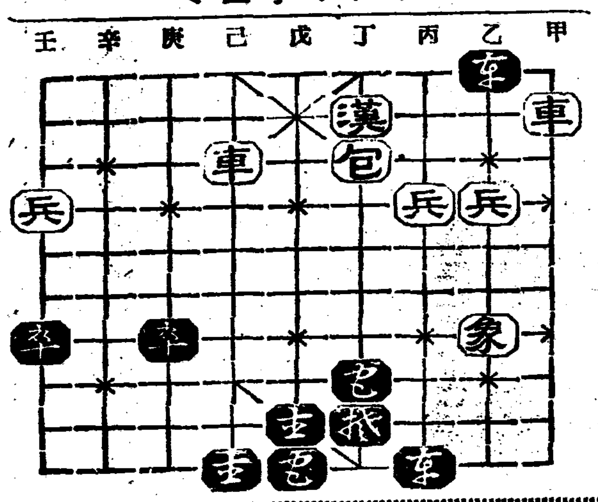
例컨데 우파社作『지-구후리드』(『푸란츠、랑게監督』)오스欧洲映畵社(伯林大歌劇交響樂)『알라、루도만監督 에드문도마이젤作曲)러시아作品 스레카라-진(『베、로마시코프監督이바노프作曲) 其他……等이잇지만、이것들은 本格的交響樂的樂曲으로 音樂的으로도獨立된 價値를가지고잇고 따라映畵의內容을 考慮해서作曲된것들이다 그러나이런것들을 實際로 上演할때 그作奏는 큰交響樂團이업는都市에서는 困難한일이엿다

昨年봄 東京서 上例에잇는『지-구후리드』를畵版(『바그너-五十年祭記念의하나로 伯林國立歌劇場交響樂團演奏로 製作된것이다』를機會를가젓섯다 『지-구후리드』는 바그너-의 不朽의名作이고 따라 映畵『지-구후리드』는 지-구후리드傳說에 依據해서맨든 랑게監督作品임은 上記한바와갓다(그製作年度는 一九二四年) 나는 그때生覺하기를 바그너-의音樂은 映畵『지-구후리드』의 說明도 아니고 그러타고 바그너-의 音樂의 本來의 感興이 잇서서로 아니고 단지『지-구후리드』이야기의 影像(畵面)에 隷屬되여서 조곰만 音樂으로서 終始된것을 보고 크게失望한적이 잇다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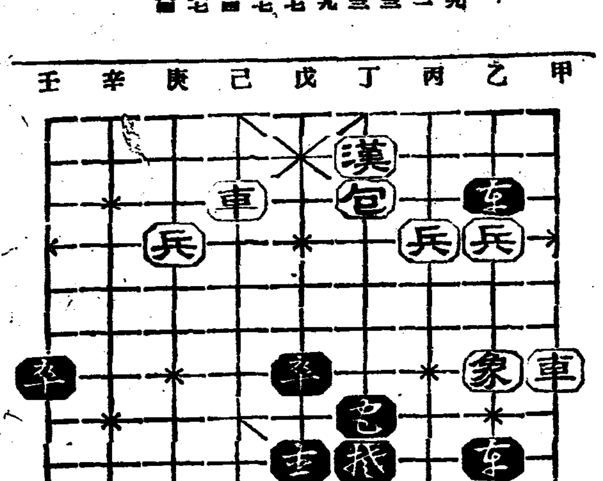
漢 李在鳳 楚先手 金于石

◀九十手圖▶



◀百手圖▶

丙十?—丙九 己三車—丁一 乙二?—乙三 丁一車—己三 丙九?—乙九 甲二車—甲七 庚七?—己七 壬四兵—辛四 己七?—戊七 辛四兵—庚四



銀幕의女王『갈보』 또다시米國으로

【紐育發同盟】映畵界에서 引退한다는등 米國으로는 다시오지 안는다는등 種種의風說과함께祖國 스위덴으로돌아간 銀幕의女王『그레타갈보』孃은 去五月三日紐育入港의『그립르호름』號로 米國에와다 인터뷰하는 記者團에게 웃는얼굴을 죽처럼보이지안는갈보도 이날은어쩐일인지 寫眞과가티多數의 新聞記者團에 包圍되야서 웃음섞어 歸米談 一席을하고잇다

콩쥐팟쥐 市內東洋劇場에서公演中인高麗座의新劇한場面

★曆★

五月三十日(土) 舊四月小 (初十日)

壬子·木·氐·危、

●小滿二十一日(舊初一日)

●芒種六日(舊十七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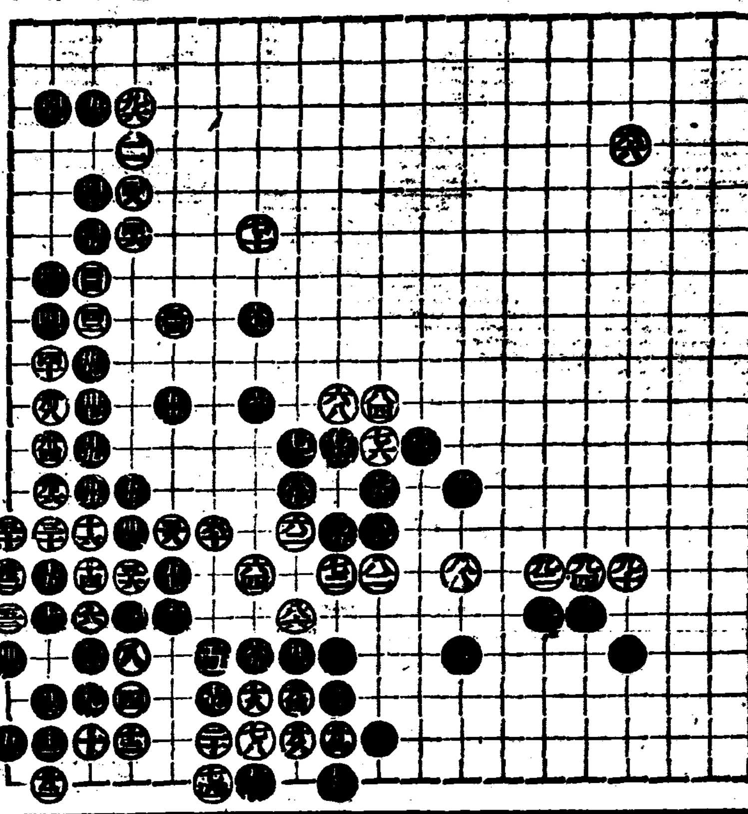
演藝消息

劇藝術研究會 第十一回公演

市內 仁寺町 泰和女子館內에잇는 劇藝術研究會에서는 오는二十九日부터 三日間(每夜七時半) 市內太平通 府民館에서 第十一回公演을 한다는바 上演目錄은 柳致眞作『姉妹』(三幕) 中國近代劇作家 田漢作 金光洲譯『湖上의悲劇』(一幕)으로 入場料는 四十錢均一 學生二十人團體에는三十錢으로 割引한다하며 벌서부터 一般觀衆의 期待가 자못크다고한다。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6-

白 丁重春
黑先 任佑植



●癸의十三 ○癸의十四 ●壬의十一 ○癸의十 ●子의十三 ○丑의十五 ●丑의十二 ○辛의十四 ●辛의十六 ○丁의十四 ●己의十五 ○己의十四 ●戊의十五 ○戊의十四 ●辛의十二 ○巳의十三

黎權文氏評曰

白은 中央引出에 全力을 傾注하고 黑은 丑의十二로 白一點을 打取하야 連絡을 主張하니 奇한 變化는 頓無하다 現時光景으로는 欠缺이 白便에 凝在하니 高明手腕을 據此一覽하리로다

務安郡內六個校에 缺食兒童三百餘

朝鮮農村이아니어면보지못할 麥嶺期農村의慘憺相

【木浦】 맥령(麥嶺)기를 당하야 농촌에 잇어서는 조선농촌에 연년히 닥처오는 현상이거니와 금년춘기는 례년에 볼수업시 더욱 궁상에빠진것은 수십년래처음가는 작년 대한발에 더욱 큰원인이라는데 무안군내(務安郡內) 공립보통학교에 결식(缺食)아동이 나날이 늘어가는 현상이라한다 지난 이십륙일에 조사한바에의하면 삼백삼십구명의 다수에달한것으로 이를학교별로보면 다음과 갓다한다

莊子公普校	百六十名
慈恩公普校	四十五名
望雲公校	四十二名
務城公普校	三十七名
智島公普校	二十二名
岩泰公普校	十六名
三鄕公普校	十名
荷衣公普校	六名
合計	三百三十九名

鋪裝費超過로 金海邑會論戰

【金海】 경남김해읍에서김해、선암(金海仙岩)간 도로포장공사를 한다는것은 긔보한바어니와 작년시월중 회의석에서 김해、선암간 도로포장 지반공사에 읍민에게 부담시키기로 결정하고 총인부 사백륙십명가량 예산으로 결의하엿든것이 지난이십오일읍회에서 도로포장지반공사부역부담 추가에 대하야 본시읍회에서 결의된 인부는 사백륙십여명인바 실지도로 지반공사를마친오늘에 인부수를 뽑때구배이상인 사백칠십명이 나초과되엿는바 읍의원들은 읍장의독단적 행동으로 사백칠십명이나 초과된 인부는 읍민에게다시이중부과를 할수업다는문제로 이일간이나 론전이 되엿스나하등해결을 엇지못하고 의회는중지되고마럿다한다

優良幼兒表彰式

【鎭興】 함남영흥군 진평면(鎭興面)에서는 지난오월에 거행하는 유아애호데ー를 게긔하야면주최로 면내각리에 산재한유아 신체발육심사를 공의 鄭乙(鄭乙)씨의 주심으로 실행하엿다는바 그후이회에 궁하야 심사한바 우량유아(優良幼兒)에대한 표창이 지난이십오일에 잇섯다는데 입상한유아의 씨명과 보호자의씨명은다음과갓다고한다

等數	保護者	入賞者	住所
一等	趙炳洛	趙仁德(3)	鎭興里
二等	趙久鳳	趙炳德(二)	新塘里
二等	松竹晴吉	松竹仲開(二)	鎭興里
三等	朱慶明	朱炳泰(二)	鎭興里
三等	金麟淳	金昌燮(3)	鎭興里

◇寫眞…優良入賞者一同

飛行機단家屋稅 二倍乃至五倍增

府로昇格된뒤에따른膳物! —光州府民의喘息相—

【光州】 광주는 작년시월일일에 부로승격된후 부내각방면의 시설을 면목일신케하고잇는바 그로인하야 자연부민의부담이 과중하고잇는데 금년도의 가옥세(家屋稅)는 례년에 보지못하얏슬만치 일약이배내지 오배의증세를 보게되야 가옥소유자들로서는 대공포를느기고 부재무과에살도하야 리유를뭇는등 대혼잡을 이루고잇는바 광주에서도 제일번화한 본정(本町)등지는 작년에비하야 가옥세 약오배의증가와 부가세(附加稅)약오배의등귀를 보게되바 그중에서도 호별세(戶別稅)의 면세(免稅)를보게된호수는 약오천이백호에 달하엿다는데 그들은 년수입이백원이하되는 사람들이라한다

배를 매여노코도 밤잠을 못자는 형편이엿섯는데 이에 대한 방책이 업서서는 선박소유자의 불안을 제거할수업고 또한 생명재산에 위험을 늣기지안흘수업다하여 저반 유력자간에 항만조사회(港灣調査會)를 조직하고 원산부춘일정(春日町)해사출장소(海事出張所)뒤에 잇는 개천입구를 준설하여 소형선박등의 피란장소로 정하여달나고 요로에 요망하엿든바 원산토목출장소에서 비로소 래월초부터 삼천원의예산으로 환성잔교(丸星棧橋)로부터해사출장소뒤에 일으기까지 약이천평을 상미돌반 깁히로파리라는바 이것이 준공되면 연안수천어민에게 지대한 편리가잇슬것임으로 일반은 속히 준공되기를 고대하고잇다고한다

鑛山用土地買收 價格差別에憤慨

朝鮮人地主結束反抗

【舍人】 평남평원군 동암면에잇는 일본광업주식회사 자모성광산사무소(慈母城鑛山事務所)에서는 그동안 어중리광산에 사용할토지수십만평을 매입중에잇는바 그가격평정에 일본내지인의 토지와 조선인의 토지에잇서서 대차가 잇다고하야 일반의여론이 노픔뿐아니라 일반 조선인지주들은 이에대단히 격분한나머지 모다결속하여 끗까지대항불매중이라는데 그경과를 들어보면 전긔광산에서는 작동이래수만평에 달하는 토지매입이잇섯는바 그중일본내지인모모의토지에 대하여서는 밧(田)에팔십전내외 논(畓)에 일원오십전내외로써 사고팔엇다는것이 확연함에 불구하고 조선인 모모(某某)의 토지대가에 대하여서는 실로천양의 대차가잇는 불과 삼십여전에 매입하엿다고 한다 (사인장(舍人場))로모(盧某)외수씨의 지주들은 그가튼 차별로써 매입하는 무리한 지가에는 절대 불응하기로 의견이일치되여 극력반항중이라는데 요사이는 또다시 각지주 에게 대하야 매평 이십전이하로 속히 팔지안는 경우에는 전부 토지수용령의 적용으로써 사용하고 말겟다는 위협적의 내용증명등을 발하고잇서서 량방의 교섭은 의연히결렬상태에 잇슴으로 냥의 비례로도 대가를 주지안코 사보겟다고 하는 동광산의 태도에반 매우 괴상히 볼뿐아니라 압흐로의 태도에 주목중이라고한다

▲地主談—그동안 매매한 모일본내지인의 토지가와 가튼 가격만이래도 준다면 팔겟노라 하여도 듯지안코 매평 이십전이면 팔라고 하니 그어찌 팔수잇겟습니까운운

元山의年來宿望 船舶避難所設置

來月부터工事着手

【元山】 원산항의부두는 압호로 방파제(防波堤)가 잇다고하지만은 너무나저서 풍시에 폭풍이 습하면 그방파제를 넘어오는무서운파도에 계류하여든 전마선 범선등 적은선박들은 종파에밀려 파선을 당하는일이 종종잇서 일반어민들은 전원산부두에

臨益水組移住民訪問記

今後남은問題는 貯水池拂下問題

移民組合을組織하야積極活動

黃登에서 白安 善

그리하야 농사라고지어다는것은 한이상이 칠수되야 수확개무상력이요 산설고물서른 타지방에서 떠구나 지방민의배타는 심하게되니 자연 그들구백여명은 아무리한끼손홍한도이엇것만 일지단절하게되엿다 매마칠 필익수리조합 수로간선공사(水路幹線工事)가 시작되자 적긔 이주민들은 구배여명 편서로간 선공사 하청부(下請負)를 상천여원에 마터가지고 작년겨울부터

공사를 시작하게되여 하마트면 아사의구렁에 빠저섯슬번한 구백여명이 간신히 련명을하게되엿스니 작년가을지위! 그들이 면의 발을 모도가 몰려빠젓다하야 활동이 나서기 여원에와서는 벌써 만나서 봄도 이주민들 어디지 뱃다 수가 합치 울며 처창한 활동이 자치도 피(?)를 가지고이다 공종하야 산한 …… 조선에서 입을 이 놉흔 이주민공 동작지로 엇 삼천여평을 구입하는 여명 현 요교지(要校地)를

고산건시(高山乾柿)이런할 정산물이 그래지 수고안코서도 드러오는 수입도 불소하러니와 황목(火木)이 흔하고 산기슭거맥전(麥田)을 만드러 경작하엿섯스나 활동이주후에는 밧(田)은 더구나 젓선하기가 철두철 되엿다고한다 그리하야 농가의 중요한생계는 끈허지기도 되엿다하야 흥미를에는 이주민

임익수리조합에서 약팔백여정보의 경지정리를 시행한후 일반에게 불하(拂下)한다는말을 드른후 이민촌에서는 우리에게될수잇스면 불하도록 하여달라하야 일부자금을 모취하고 금후 이민사무를 적극적으로 취급코저하야 작년십이월에 활동이민조합(移住民組合)을 조직하엿다한다

그리하야 비이민촌(非移民側)에서도 조합원의 가입청원이잇서서 약수만원의 자금을만드러 놋다는데 이돈으로금준매려고에 이민들에게 최저리로대부를 하야 생활에보조를하는일방 금변 농비자금등도 대출키로하엿스며 앞 민의 무난한 조합원은 대출하되 나 조합원에게 뿐이 조합원 으로 밧게 기대하엿다고한다 ......

살겟다고 눈물비저 애원한는중 지난오월중에 작년도 경지면적 만큼은 주겟다는확답은 잇섯스나 이민측에서는 일호당일정보 이상의경작지를 주어야 먹고살겟다하야요새도매일와가리 조합측을차저애원을하는중이라고한다 그리고 그들은 거처의 비위생적편계로 병마가침범하여도 성한사람의먹을것도업는판에 어니 여가에 약쓸여유가업서서 작년 겨울중에만하여도 오십여명이 사망하엿다하며 방금병석에 누워잇는 환자만하여도 팔십여명이나 된다고한다 아동교육문제에 대하여도 고사꾸거당시에 약백명이상 통학하든 아동이 활동이민이된후로는 전부가 휴교중이며 보통학교에 단니는아동들은 겨우 오륙명밧게 안된다고한다 금후 이민조합의문는 첫가

문제를 중심으로 금후진전을본다면 당초에 관계당국측에서경천주민 이주권유당시에 어떠한 바와가티 활동이주민에게 상당한 토지를 불하하가가(開墾?) 救濟策은잇슬는지문제이다 지금 그들이 실낫가튼 희망을 가지고 잇는것은 다못 이토지의 적당한불하가되여질것이나 아니냐에 서비롯할것인데 당국의 이요교지불하문제를 드려보면 종래연고자측문제는 일소시킨후 대지 주를제하고 소지주층을 표준하야 자작농창정을 목적으로하라라는데 현재일천이백여정보나되는 저수지구내에서 약팔백정보 가량을 개답하되 금추내로 경지정리를마치고 사업계획안을세운후 상부의인가를기달려 래년 농사는하도록 불하에착수하리라고한다

이긔회를 엿보아 대지주층과 유력가층이 암약을헙족하고 엄정한선발로는 농민의손에 도리갈는지 아니 저 활동어주민에게로 도리갈 뿐해면적이 얼마나될는지 이것이 일반의주목되는 관심을가지게 되엿다고한다(完)

朝鮮佛敎布敎 認可運動討議

【大阪】 지난오월이십오일에 시내 동정천구(東淀川區)......재일조선불교인(在日朝鮮佛敎信仰會)에서 …… 구포교소에 잇는 승려대표들이 모히어 조선불교 포교인가에 대하야 장시간의 토의가 잇섯스나 승려들이 결의하기 부로는 조선불교단도대회를 오는륙월중에 대한 방침을 결의하는 동시에 대표를 동경으로 파송하야 내무성에 교섭하여가지고 포교를 인가받게하기로 결의하고 산회하엿다고한다

釋王寺橫領事件

全雄奎等無罪白放

宋太昊一名만公判에

【元山】 세려다툼의 파쟁으로말미암아 여러가지의혹마이 들어나서 중요간부들의 검거송국으로 일시세상의 의혹을사든 합남대본산석왕사(大本山釋王寺)사건은 원산검사국으로 송국되어래 사전(寺田)검사의손으로 엄중한취조를 밧든바 전웅규(全雄奎)등 칠명은 무죄로 파면되여 불긔소로 석전재일(釋奠祭日)전날인이십칠일에 즉시석방하엿고 동사의감사인 송태호(宋太昊)한명만은 업무횡령죄로 결정되여 원산지방법원지청공판에 회부되엿다고한다

待望의鰮群襲來

咸南沿岸俄然活況

遮湖、西湖等附近에서大量漁獲 —本格的漁獲도不遠—

【咸興】 함남도 연안어민을 조러든 온어군(鰮魚)의 대습하얏다는쾌보는 오월초부터 수만어민들이 기대라고잇는 온어군은그간 남선지방으로부터 직선으로북상하야 차호(遮湖)연해에까지 몰려왓다 이소식을들은 어민들은 깁빼날뛰며 지난이십오일건착선(巾着船)으로 출어하얏는바 뜻밧게도 한배에서 약삼십춘이나 잡엇다하며 이십륙일에는 서호(西湖)근해에서도 상당히잡혓다는 소식이 전하고잇다 이로보아서 온어는 완전히 도 연안에 몰려온것임에 틀님업다하야 근심에잠겨잇든 어민들도 갑작이 활긔를정하게되엿스며 각어항은 미칠듯이깁뻐에 날뛰고잇다한다

【西湖津】 동해안 온어(鰮)어획구는 어업자들에게 만흔 기대를 가지게 하는 어계를 갓게하는 시긔이니만큼 그준비에 분망하든바 원산 군선등지의 바다에서 온어사십여 통을 잡어내엿다하며 시험선(試驗船)에서도 온어대군을 발견하엿다는바 미준비된 어업자들은 날을 닷투어가며 그준비에 분망중이라고한다

【元山】 정어리어군의 지연으로 일반당업자의 초조를 낫코잇든 요지음 서호진(西湖津)부근에서 잡히기시작하야 원산만일대의 어업자들도 비로소긴장미를 띄고 대긔하고잇든중인데 원산수산시험장 분양환(北洋丸)은 려도(麗島)바다에서 수온검사를 하여본결과 정어리회유에 적당한 구도(九度)수온을보지한것이 판명되엿는데 점차온도의 앙양을따라 정어리의 북상이 잇슬것이라고 보아짐으로 오래지안어 원산만내에서 정어리를 유양하리라고한다

流腦死亡者를 秘密埋葬에土葬

大同署摘發取調

【平壤】 위험하기짝이업는 류행성뇌막염(流腦)환자를 비밀히토장......

經濟大講演會

—主催 鎭南浦商民會 後援 本報鎭南浦支局—

演士 本社主筆 徐椿氏

【鎭南浦】 진남포상민회(商民會)에서는 조선일보사주필 서춘선생(徐椿先生)을 청요하여 본사진남포지국후원으로 오는륙월오일 하오팔시부터 진남포공회당에서 경제대강연회를 개최하리라는바 연사가 현하조선경제학계의 최고권위자이니만치 상공업자들은 물론 일반이 한번드지안흐면 안될우리생활상 가장중대한 강연회이니만치 다수의 청강을 바란다고한다

學術講習開講

曹漢宇氏敎育熱

【羅州】 원적을 전남나주군……

▲曹漢宇氏談

地方人事

▲李基防氏(開城城尹、黃海道參與官) 本報開城支局來訪

海州邑內에强盜

三人이出現脅迫後 現金三圓餘를强奪

【海州】 지난 어섯날밤오전렬시이십분경에 해주읍광석정일백오십일번지 고용성(海州邑廣石町一五一番地 高鏞成)이사랑에서 편히 잠이들엇슬때 밧게서불켜시오하는소리에 놀라깨여 문을연즉 괴한세명이 서잇다가 한명이 방으로들어와 만주로가는사람인데 려비를 좀보태달라고말함으로 돈이업다고한즉 주머니속으로 주인의쌈지를 뒤지고 또장도리가튼것으로 협박하며 압방으로 끌고드려가 자고잇든 고용성의처를 위협하며 따라들어온괴한이 주머니속에서 지갑을빼아서 그안에잇든 돈삼원사십사전을가지고 일제히 도망하엿다는바 이급보에접한 해주서에서는 사법주임이 형사대를 대동하고 현장에 출동하야 범인의 행방을 탐정하는중이나 아즉 행방은묘연하다고한다

鎭南浦

徐椿先生經濟講演

◇時日 六月五日午後八時
◇場所 鎭南浦公會堂
◇主催 鎭南浦商民會
◇後援 朝鮮日報社鎭南浦支局

母乳代用에最適 使用方法簡便

北海道ミルク

・가장信用할수잇는煉乳・

明治製菓株式會社

懸賞 蓄音器提供!!

—懸賞課題—
一、世界一의蓄音器、레코ー드의名稱
二、「물새야 웨우느냐」의歌手는 누구인가
또 어느會社의專屬인가
三、同上레코ー드의番號는 몃番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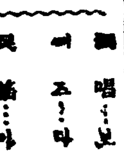
—賞品—
嚴正抽籤한後左記賞品을贈呈함
一等 콜럼비아携帶用蓄音器(第五五號定價廿五圓)一台 五名
二等 新型電氣라이파 一個 十名
三等 콜럼비아레코ー드 一枚 八十五名

—募集規定—
一、用紙는官製葉書
一、京城府長谷川町一一二番地콜럼비아會社懸賞係로보내시오
一、期限은六月三十日 一、發表는七月末日新聞紙上에
一、廣告를보신新聞名을朱書하시오

六月新譜發賣

特別提供 流行歌 물새야 웨우느냐 姜弘植 外

新譜抜萃



잘팔니는 포ー타블 —第五十五號—

¥25.

콜럼비아

印刷業代理店募集

全鮮各處에一郡一個所의代理店을募集하오니印刷業에有意하신人士는二錢切手添付하야規定書를請求하시요

京義線嶺美驛前(私書函六號)
株式會社 太宗社
振替京城七七四九 電話五番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

小兒良藥 奇應丸

百發百中

育兒名藥의偉效

主治 疳, 보채고, 身熱, 氣絶, 경련, 緣側下痢, 夜泣, 癇癪, 痘瘡, 發疹, 胃腸衰弱, 其他病한兒

小兒病이면 무엇이든지病症, 體質을不問하고이집문이 一包的 打服하야 效驗

救急、治病、保護 無代進呈「育兒の友」

藥價 二十錢부터 十圓까지 徳用包一圓

大阪天滿橋 本舖 樋屋合資會社

M—K—3

頭痛이갈낫는名藥

有名한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獎

ノーシン 노ー신

●머리가 갈러지는것가티 몹시 아플때에
●바늘로 쑤시는것가티 끌치가 아플때에
그리고 머리가 아프지안트래도
眠이 不足하거나 過度한讀書로睡
술을過飮하고 餘毒으로 氣分이조치못할때나 머리가무겁고 흐릿하게할때나

언제든지참고노ー신을복용하야보십시오 언제머리를 아프든가? 하는느낌을 가지게아니하고 아조머리가 ......

특히 효험이잇습니다 ......

노ー신은 어느곳을勿論하고 各藥房店에잇습니다

사실때 帽子 印잇는ノーシン에

藥價 二十錢 四十錢 一圓 ......

發賣元 荒川長太郞合名會社
名古屋市中區……二丁目
振替名古屋七五三番

五月廿八日夜間부터三日間 三大名畫提供週間
每日三回 晝夜興行正午十二時부터 六時半까지 夜映畫夜間八時부터始映
廿世紀映畫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巴里ツ子
모ー리스・슈바리에氏一人二役 主演
말ー오베론嬢、안사ー상뷰助演

樂園に歸る夫
水原洋一氏、丘はるみ主演

怪物園

第一劇場
電話光三六番

五月卅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時四十分 午後一時 午後六時半
特別大興行
유니버살社超大作映畫

사랑과光明
"Magnificent Obsession"

꿈속의街路
"If You Could Only Cook"

さむらひ —(次週封切)—

團成社

五月二十七日より六月二日マデ 上映時間表

浪花館

五月二十八日よりー!
五百年後の地獄

優美館
電光二三九五
아리랑고개
이뉘에울어라

朝鮮金組의 發端 距今廿九年前今日

▲……林財務局長 談

地方金融組合規則이 發布된지 第二十九週年 記念日을 마지하게 되엿다 그리하며 組合事業은 昭和七年 農山漁村의 振興을 目標로 自力更生運動이 樹立된것을 契機로 하야 다시 活躍을 하고잇는터이다 自力更生運動이 展開되자 率先하야 이運動에 參加하야 地方振興의 中心的 施設인 高利債의 整理에 努力하고 또自作農創定資金을 비롯하야 農事改良資金 店舖設備資金 米穀擔保資金等 地方振興施設에 要하는 資金의 低利融通을 實行하야 好成績을 어덧고 今年三月末現在의 組合數는 本支所를 合하야 八百九十七, 組合員數 百三十六萬三千八, 預金 一億五千三百四十萬圓, 貸出金 一億七千九百三十萬圓에 達하는 盛況이다 特히 昨年度부터 金融組合擴充下에 部落을 單位로 殖産契를 設立하야 이契를 通하야 部落民의 共同購入等事業을 行하야 地方住民의 經濟生活의 合理化를 圖하기로하야 全鮮九十組合으로 하여금 百九十四의 殖産契를 指導식히고잇는데 今年度에는 追加 九百契의 增設을 計劃하고 그指導의 完璧을 期하기爲하야 朝鮮金融組合聯合會에 事業部를 創設하야 本格的 活動에 着手하얏다 그리고 金融組合의 活動을 一層有効하게 하기爲하야 今年에는 다시 大藏省預金部低利資金의 潤澤한 供給을 바드며서 引續하야 高利負債의 整理、自作農地購入資金等의 低利融通을 하는同時에 一般金利低下의 趨勢에 順應하야 近近 一般貸出金利의 大幅引下를 行하야 組合員의 負擔輕減을 圖하고저한다。

指導金融

矢鍋金聯會會長 談

明治四十年 五月三十日 當時韓國政府 財政顧問目賀田種太郎男爵의 손으로 制定公布된 地方金融組合規則은 今日의 金融組合令의 母胎가 되엿는데 이에 二十九周年을 맞게되엿다。金融組合과 가튼 民衆協同自助的 經濟形態는 外國에서는 約一世紀前부터 漸次 發達되야 드디어 相互金融、共同購買、共同販賣利用의 四大分野를 形成하게되엿다 日本에서도 이를 輸入하야 日本內地에서는 産業組合의 名目으로 三十餘年의 歷史를 가지게되엿다。그리고 朝鮮의 金融組合制度는 此等 內外國制度와 比하야 그組織、機能 其他에 特殊點이 不少하다

金融組合現勢

今年三月末現在

組合數 本所 六百九十八組合 / 支所 百九十九組合

組合員數 百三十六萬三千八人

預金 一億五千三百四十萬圓

貸出金 一億七千九百三十萬圓

政府所有古米 整理賣는 不可避

米價高의 抑壓、品薄의 緩和로

◇…今後政府態度注視

【東京電話商通】最近의 米價는 在米薄과 天候不順으로 連日暴騰을 繼續하야 二十八日에는 淸算先物 三十三圓六十八錢이라는 新高價를 示現하야 昭和三年以來의 高米價時代를 出現키에至하얏다 更히 五月一日 在米高를 基礎로한 今年度의 需給推算에 依하면 持越高는 八百八十萬石程度이오 現在의 政府所有米六百四十萬石을 控除할時는 民間在米는 겨우二百四十萬石에不過하야 民間의 需給關係는 자못窮屈하며 實質上供給不足을招來하기 必至한 故로 이미各地에 品薄傾向이 濃厚하다 그러데다가 最近의 天候不順은 벌서今年의 米作에 對하야 悲觀的觀測이 생기기에 至하얏고 今年度도 凶作이라면 供給不足은 去年보다 一層强化케될 것으로 米價騰勢는 果然何時에 止할지 豫測키難한 狀態이다 特히 米價의 支配權을 가진 政府所有米가 今年은 前年度와 相異하야 겨우六百萬石程度에 不過하고 古古米가 그大部分을 占하고잇슴으로 市場調節力을 有한 新米는 僅히 百萬石程度로 微弱하다할狀態이다 이高米價를 抑制하고 品薄緩和의 方策에 就하야서는 政府도 苦慮하고잇서 如何한手段에 出할지 注目되는바 結局은 政府所有古米의 大量整理賣却이 避키難하리라고 보고잇다한다

隨時拂下方針?

糧米不足한地方에

【東京電話商通】刻下의 米價暴騰은 二年凶作뒤의 特殊한米穀事情과 天候不順에 依한것이다 이에對하야 農林當局은 前年에 比하야 所有米가적고 또지금부터 如斯한 高價가나와서는 前途狀況如何로는 非常對策이 必要함으로 우선繼續하야 公定高價에 依한 年米의 買受申込에 應하는 外에 糧米가 不足한 地方에 隨時拂下할方針이라한다

硫安反騰

米價高와實需로

朝鮮內硫安市場은 過般以來 供給過剩念慮와 投賣側賣로因하야 三圓四十錢으로 一時의高價에比하면 一圓五十錢의暴落이엇스나 最近의 實需期와 米價高로反騰하야 昨今朝窒品은 三圓七八十錢가량 社外品은 三圓五十錢가량으로反騰하엿다 配給組合은 組合員의(今後七月末까지) 供給數量을 四十一萬噸을 推算하고 그中 半數의二十萬噸은 來期八月까지 持越로在庫品을 삼고 實用치안코 이在庫品은 內外硫安協定에 依하야 正期에는 極力輸出에 充用키로되엇다고한다

市價低落阻止

對策强行할方針

【東京電話商通】硫安市價對策으로 旣報와 가티 硫安配給組合은 協定最低價以下(一叺二圓三十二錢五厘)의 浮動物을 다시사드리기로 되엿스나 市價는 最近 다시 落調로 되엿스나 市價는 最近 다시 落調로轉하야 二十六日 深川市中에는 五、六月物三圓二十三、五錢이라는 低價로 떠러졋슴으로 配給組合의 首腦者는 對策을 協議中이더니 關東側의 意向은 다음과 가티 二十萬噸의 入荷를 實際하는 第二次買收를 强行키로 方針을 決定하엿든데 이對策은 일절 注目된다

朝鮮은安全地帶

中野通運社長 談

國際通運社長中野金次郎氏는 朝鮮運送總會에 出席키爲하야 二十八日午後三時二十分着入京하야 如左히말하얏다 日本內地運送界는 昨年의 雪害와 今春의 東京事件으로 相當히 念慮하얏스나 其後一般經濟界의 活況에 依하야 恢復하고

輸入許可制施行後 羊毛値上禁止

不當利得을抑壓

【東京電話同盟】政府는 旣報와 如히 濠洲에 對한 報復手段으로서 通商擁護法發動을 促成키로되엇는데 羊毛에 對한 輸入制限措置는 今後實際의 運用에 對하야 收支의 衡平을 期하고 어듸까지던지 一方日本內地에서 이때문에 羊毛製品市價가 投機的高騰을 볼 憂慮가 잇서서는 通商擁護法發動의 根本的精神에 反하는 것으로 輸入許可制施行과 共히 賣惜、羊毛市價의 投機的引上을 禁止하도록 政府에서 適當한 處置를 取하고 國策遂行에 伴한 一部業者의 不當利得은 極力抑壓할 方針이라한다

障碍打開 日英交涉

再開될機運

【東京電話同盟】日本은 全面的 通商障碍에 直面한 打開에 關하야 日本經濟聯盟에서는 今後의 根本的對策으로 日本及 英國政府間의 通商交涉을 再開케하에잇다고 斷定하고 이方針에 添하야 今後對策을 進할方針이다 이것을 爲하야 民間으로부터 再次有力者를 英國에 派하야 日英通商會議를 再開케하는것이 必要하며 이意味에서 駐英大使로서 赴任의 途에잇는 吉田大使에게도 傳達된 他方 前年日本에와잇던 鄕誠之助男으로부터 鄕男에게 바비卿으로부터도 右와同樣의 交涉이잇는것과가라아 經濟聯盟首腦部間에 이미秘密히 派英代表의 人選을 進하는中인 模樣이라한다

經濟聯盟에서 對濠態度協議

【東京電話同盟】日濠問題對策을 樹立키爲하야 日本經濟聯盟에서도 二十八日 貿易委員會를 開催하고 羊毛工業代表로서 東京모스社長、塚脇常務、製粉代表로서 正田日淸、中村日東兩製粉兩社長의 出席을 求하고 當業者로서의 希望意見을 聽取하얏는데 同日은 結論을하기에至치못하고 二十九日 繼續하야 田、鮎見、塚脇三氏外에 輸出關係者로서 絹業關係로부터 庄司紡聯委員長、人絹關係로부터 上總日本輸出人絹織物組合聯合會長、更히 貿易關係者로서 三井物産、三菱商事、輸出組合中央會로부터 三氏를 招하고 經濟聯盟 常任委員을 加하야 日濠商議의 小委員會를 開催하고저 具體案을 作成하야 來週初에 經濟聯盟 常務委員會의 議를 經한 定인 會議總會에 附議決定後 政府當局에 進言하는同時에 民間의 實行을 期키로되엇다한다

朝鮮纖維工業의 統制機關

"機業協會"를 創設

朝鮮의 纖維工業에 對한 統制機關은 業者부터 業界의 要望이든바 二十八日 午後 總督府에서 業界側 朝紡、鐘紡、東紡、京紡의 四紡績을 비롯하야 人絹製織代表와 總督府 中央試驗所關係 人絹染色整理의 各機業關係各社가 參集하야 愼重協議한結果 朝鮮機業協會를 擴大强化하야 그 中樞機關으로함을 決定하고 定款 其他의 協議를 하엿는데 機業協會의 役員은 다음과가티 決定하엿다

▲會長=山本鈍吉(中央試驗所) ▲副會長=宮林泰司(朝紡副社長) 金季洙(京紡社長) ▲評議員=朝紡外二十一名

그리고 紡績 人絹製織 染色整理等에 各部制를 實施할豫定인데 今後의 協議로決定할터이라고한다

地金商閉店續出

朝銀持金繼續增加

朝鮮銀行에 가지고오는 地金은 最近一日平均 純金換算九貫餘에 達하는터인데 이것은 買上價의 引上改定과 鐵路方面의 市中地金商人이 密輸出杜絶等의 關係도잇서서 最近旬日間에 十餘店閉店 現在에는 三、四店으로減少한때문이라고한다

▲滿蒙毛織增資【東京電話同盟】滿蒙毛織椎名專務、平野支配人은 同社資本金二百五十萬圓(全額拂込)을 三百萬圓增資인五百五十萬圓으로 增資코저 東拓과 折衝中이든바 諒解가 成立되엿슴으로 拓務省에 認可를申請하얏섯고 二十八日正式으로 認可가 잇섯다 同社의 增資金用途는 奉天、名古屋兩工場의 設備擴張과 北中進出의 積極化에 充하는外에 一部는 流動資金에 充할터이라한다 增資株는 全額을 東洋拓殖이 引受하리라고 한다

朝鮮米取聯合會 廿九日臨時總會

全朝鮮取引所聯合會에서는 廿九日 午後二時부터 朝取樓上에서 臨時株主總會를 開하고 協議하리라한다

滿洲大豆 對獨輸出이旺盛

滿洲國際運輸專務 談

國際運輸專務藥島信司氏는 運送總會에 出席키爲하야 二十八日午後三時二十分 入京하야 如左히말하얏다 滿洲特産은 昨年은 收穫이 減少하얏스나 例의滿獨通商協定의 成立에依하야 滿洲大豆의 對獨輸出이 激增되여 今後安心하고 增産計劃을 樹立할수잇게되엇다 滿洲의 荷動은 出入共히 年年 活潑한데이는 滿洲國政府의 諸施設과 産業開發의 進展에 依한것이다 北朝鮮三港에의 貨物이 적다하나 要는 今後에 잇는터로 牡丹江을 中心으로 한 鐵道가 完成되어 移民이 增加하고 沿線이 開發됨에 依하야 北朝鮮에 流入할것은 必然의일이다 云云

鮮滿拓殖制令案 原案을正式決定

鮮滿拓殖株式會社制令案은 二十八

昨年米生産費

不發表로決定

外地米生産費調査는 十年度分도 結論에 못니르럿스나 議會終了後 二十六日內閣에서 關係者가 參集하야 協議한結果 十年度生産費는 九年度와가티 研究하고 아즉內外地가 모두 事項이 發表치아니함이라고함으로 正式決定하엿다고

臨時總會를 열고 朝取米豆部委員長新山義氏로부터 最近의 日本內地米取側의 米穀統制案에 關한 報告를 聽取한뒤 朝鮮側의 對策에 關하야 協議하엿는데 當日出席者는 다음과가다 ▲朝取 荒井理事長 小杉理事長代理 秋山常務 田崎支配人、平岡文店長 新山、內海正副委員長 三井書記長 ▲群山 森理事長 正木常務 ▲木浦 內谷理事長 石井書記長 ▲大邱 古谷理事長 高島常務

朝鮮商議總會議案

六月十六日 第五回 朝鮮商工會議所總會에 提出할 各地商議의 提議案은 如左하다 ▲咸興=中小工業의 振興에 關하야 必要한 施設實行을 當局에 要望할事 ▲鎭南浦=鎭南浦鐵道의 開通에 伴하야 鎭南浦 第三期築港을 急速히 實施하기를 要望할事

取引停止

(五月二十五日) 酒類販賣業京城府光熙町一丁目二三番地洪孝則 ▲貸金京城府崇仁町二四四番地 李鍾然 ▲京城府永登浦町 鄭履潤 (五月二十六日)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一一番地 倉敷音樂商會鄭禹遂

經濟界消息

○朝鮮運送總會五分配可決=朝鮮運送에서는 廿九日 午後一時부터 同社에서 第十回定期總會를열고 利益金處分案(年五分)을 可決하고 吉田秀次郎氏가 새로히 取締役에 選任되엿다고

○朝鮮決算總會五分配可決=朝鮮決算會社에서는 廿九日午前十時半부터 第四回定期總會를열고 利益處分案을 可決(年五分)하고 大島、田淵兩監查役任期滿了에 對하야 改選한結果 大島氏는 重任 佐方文次郎氏가 新任되엿다고

○京城商議主催工藝座談會=六月三、四兩日 午後一時부터 仙臺市國立工藝指導所長國井喜太郞氏를 招聘하야 工藝座談會를열터이라고

○日本製鐵七分配當內定=【東京電話商通】日本製鐵에서는 廿八日 本社에 重役會를 열고 當期利益金處分案(配當一分增의年七分)을 查定하엿다고

經濟手帖

○水組 利拂 節減이 三十萬圓의 巨額

○이런판에 水組費 輕減은 꿈도 안꾸고 積立金으로 保留한다나

○朝鮮運送總會가 鮮銀만으로 살기조흔데라고 하더니 中野通運社長도 安全地帶라고 말한다

○朝鮮은 地上樂園으로 아는모양 자기네들로서는 朝鮮와서 사는것이 그럴지 모르나

○白衣大衆은?

市場機構狹少

事業株中에는 造船株가튼것 또時局關係가튼것은 物色買가 繼續되는터이나 今後 强化될 産業統制나 增稅問題가 如何한것일지 軍部가 明年度에 要求할 豫算이 膨大하면 그만큼 그財源으로서의 增稅도 加重될것으로 財政인프레도 조키는 하지마는 그好影響을 만히바들수잇슬것이며 特히 貿易前途가 各國의 日本品排擊을 그伸展은 警戒치안을수업다 如斯한 諸事情下에잇는 市勢는 그機構가 自然히 狹少해질수밧게 업는것으로 自由奔放한 投機的買賣는 不許하는 實情이매 株式市場의 今後는 從來와 相異한 推移를 示할것을 認識하여야 되리라말이잇다。

投機人들失業

二、二六事件을契機로 株界는 變化되어 投資家는 信託、保險、配當等을 重要視하고잇는터이나 所謂投機家를 相對하는 取引所投機株相場의 騰落보다도 實質的으로 對處하는 東新가튼 것의 無氣力에 依하야 營業이 안되어 東京株式取引所 東新의 去勢가 더욱顯著한만큼 東新一本主義인 朝取證券部가튼것은 더욱投機人失業時代를 목도하고잇다

東新地位轉落

東新은 投機株의 代表로서 大衆的 取引이되어야만 그價値가잇는것인데 非常時投機抑壓時代에處하야 漸次賣買가적어진다면 主力株로서의 地位가轉落될것이며 이저버리던 取引所制度調查會도 政府의 國策의 新進展에 伴하야또 問題가 될것이다 結局取引所는 手足을 縛當케되어 東新獨特의 妙味를 不濟關賤失케될것도 미리覺悟할 必要가 잇다

株式 押目買로 更强

商況 (廿九日)

前場少高 買込도 遠賴되어來月期待의 押目買物로 今前場은 諸株昴高이엇다 即昨後引에比하야 東新七十錢高(記賣落)九十錢低인 七十三圓十錢 鐘新一圓十一圓八十錢 大新(記賣落)百三五十錢高인 百五十三圓 四十錢 日産四十錢高인 六十九圓九十錢에 各大引되고 朝新二十六圓五十錢 日魯十錢 朝取六十八圓八十七圓丁 各一本이잇섯다 ▲東新三(公)(寄)三(引)

後場續强 後場은 大阪長期當限受渡로 休會短期一時間立會로當地도早引이엇는데 大新七十四圓丁으로記落賣埋이고 東新百三十二圓三十錢、日産七十圓三十錢、朝取六十八圓十錢에各大引

期米 利喰賣나 堅强

前場頑强 昨後場 阪地三十三圓五十一錢止외共히 三十一圓二十七錢에 場를止한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三圓四十三錢인 八丁反落을 撥하고 도意外賣氣壓迫하야 三十一圓二十八錢인 反히一丁高로場을始한後 阪地五十一錢까지 返戾함을 맛아 三十八錢까지 反騰하엿다가 阪止四十一錢의 反落을伴하야 二十五錢에場을止하엿다

後場堅調 後場은 三十一圓二十七錢에 二丁高로 始場後 四節三十四錢이고 五節無賣買로 二十八錢에 止場하다

農家去益寶惜

日氣不順으로

朝鮮의 播種時期의 雨量은 廣히洽足하야 播種은勿論植付期에入하기까지 用水不足의 憂慮가 업슬것으로 一部地方은 樂觀하는모양이나 그러나 忠南北、全南北、平北地方은 旱魃가잇서서 彭當局으로서 對策을講究한다는 說이잇슬뿐아니라 參作은 平均三割程度의 減收를 免치못할이라하며 日本內地의 東北地方과 如히 곳에는 昨今의 冷寒이 不少하야 벌서 凶作을 悲觀하는터이니 작情勢인 此際 米界에 又一層 刺戟을與하엿다 實로前途高米價의 時代를 期待하고잇는 中農以上은 換近天氣의 不調를 唯一한 好機로하야 又一層賣惜하는 光景이다 그럼으로 昨今의市勢는 阪地三十三圓五十錢臺의 高價를 비롯하야 當地는三十一圓 三十錢臺인

東京國債市場

(取引高一六〇枚)

【東京電話商通】月末關係로閑散한取引이엇고 小高下區區이엇다

甲五分利	一〇一、六五	一〇一、六五
一回四分利	一〇二、八五	一〇二、八五
勸債四分利	一九八、一〇	一九八、一〇

朝取一割配內定

朝鮮取引所에서는 二十九日午前十一時부터 今期決算重役會를 開하엿는데 今期는 米豆部의 業績不振으로 前期보다三分減配의 年一割配當으로內定하얏다

實物前場取引

▲滿洲세멘트 一〇(元)▲滿洲煙草 一二〇▲帝麻新 三二〇▲日滿石油 三〇〇▲朝鮮鐵道 五〇〇▲朝鮮製絲 三〇〇▲美術品製作 三〇〇

當限一代記

步幅二百二十丁

當限受渡內容

朝取期米取組內容

市場六感

㊑非正常的 强氣論을 固執不遍하기로 有名한 都新聞이나 의字의 怪氣焰이 一笑에附할만하기에 紹介▲滿洲事變後도 六事件으로 大底入百圓以上될것스니 이번二、二十圓까지 暴騰될이 當然하고 되갑에서 百圓以上 即二百二十圓까지 騰貴될이 當然하고 ▲大保合不變 이때의 이런 소리는 참아리 '사이다' 마시는

各地正米

京城不變 期米側의買氣가 潛在하나 所持側의頑强으로 商談이잘되지안헛다 丸仁三等三十圓七十五錢 四等三十圓四十五錢 一等白米二十二圓丁

仁川好調 所持側의 態度頑强으로 取引이 意外로안되엇스나 來月初의 好買行을 目標로 買氣가 極히旺盛하얏다 三等三十圓七十五錢 四等三十圓四十五錢 一等白米十二圓七十五錢

釜山不變 中間端境 品薄豫想으로 去益先高期待를 爛하고 出廻는 殆無이오僅히 倉入物이 移出側의直積으로서 買進된程度에 不過하얏다 四等三十圓十錢 四十錢 白米十二圓七十八錢

大邱保合 昨急反撥뒤를 이어 價位觀으로 飛買는 躊躇되나 投機所持側의 賣止的態度와 定期의堅調를 移하야 氣勢는 好勢이엇다 四等三十圓十五錢 四等二十九圓八十五錢 一等白米

群山小落

定期는 僅價하야 僅位가 價位인바 다고 買付치 안코 五錢新正가 強調이나 低落를 示하엿고 當地는 依然 三等三十圓九十錢 四等三十圓七十五錢 一等白米十三圓丁

木浦同調

當地는 硬化를 보고서는 依然定期의 取引이 그대신안되지안코 極히堅實味를 取하야다 三等三十一圓 四等三十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朝鮮紙物都賣 北 全北企業株式會社 京城府仁寺町二五六番地 電光 七四五番 振替京城二四一〇番 支店 全州府本町一丁目 電 一五四番 兼委託販賣